# 어서오세요, 오늘의 동네서점

기획·제작: 땡스북스+퍼니플랜
교정·관리: 알마출판사

# 어서오세요,
# 오늘의
# 동네서점

기획·제작: 땡스북스+퍼니플랜
교정·관리: 알마출판사

차례

2015년 12월 1일~
2016년 1월 6일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보통의 책방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하루

008

2015년 12월 1일

책방무사의 무사한 하루

북촌 한옥마을의
7평짜리
저의 작은 세계로
초대합니다.

010

2015년 12월 9일

진주문고의 하루

정감 넘치는
진주문고로 놀러오세요.

020

2015년 12월 11일

서울 강남에서
20년 만에 오픈한
콜라보서점 북티크의 하루

불금의 심야서점으로
놀러오세요.

034

2015년 12월 23일

제주 동쪽 끝
소심한 책방의 하루

혼저옵서예!

044

2015년 12월 30일

속초 동아서점의 하루

서점 직원의
책 선물 고르는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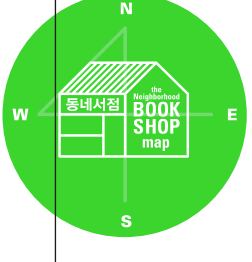
060

2016년 1월 6일

대전의 여행서점
도시여행자의 하루

여행을 읽어요.

072




2015년 10월 20일~
2015년 12월 27일

타이포잔치 프로젝트

서울의
동네서점

084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2. 90년대 시작~ 서점
3. 사회, 문화과학 서점
4. 헌책방
5. 고서점
6. 어린이서점
7. 그림책서점
8. 예술서점
9. 독립출판물 서점
10. 해외출판물 서점
11. 만화서점
12. 소규모 복합서점
13. 퀴어서점
14. 전시가 있는 서점
15. 술이 있는 서점
16. 여행서점

094

## 동양서림 추천도서

상록수 / 장욱진 관화집 / 한국대표시인 101인선집 조병화 / 조훈현 실전 최신 정석 / 이방인 / 바쇼 하이쿠 선집 / 채링크로스 84번지 /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120

## 한강문고 추천도서

노란집 / 소년이 온다 /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는 동안 꽃처럼 /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 월든 / 타인의 고통 / 수상한 북클럽

123

## 풀무질 추천도서

월든 / 생각한다는 것 / 풀무질, 세상을 버리다 / 우리들의 하느님 / 깨어나라! 협동조합 / 대화 / 아리랑 / 군대를 버린 나라

126

## 이상한나라의헌책방 추천도서

ALICE IN WONDERLAND / LE MONDE DE JEAN COCTEAU / 비트겐슈타인의 조카 / 자라파 여행기 / 민중의 벗 고리끼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 1215 마그나카르타의 해 / 서양철학사

130

## 책방 피노키오 추천도서

어느 신비한 숲 속, 유쾌한 목욕탕 / 돼지 이야기 / DANS LA LUNE (IN THE MOON) / LITTLE TREE / O REGRESSO / SMOKE / ARRIVAL / THE NEW GHOST

133

## 더북소사이어티 추천도서

STATEMENT AND COUNTER-STATEMENT / SET / 제록스 프로젝트 / IBO /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 내성천 생태 도감 / IDEA DOCUMENT ON THE SHOULDERS OF GIANTS / THE KOOH 6호

136

## 유어마인드 추천도서

눈 먼 글쓰기 / 현실탐구단 보고서 04 / 퀴어인문잡지 삐라 2호 죽음 / PBT (포토샵 브러시 텍스트) / 애플시나몬의 야채소동 / 도미노 DOMINO 7호 / 서사적 사물들: 일상도구로 전환된 1+2차 세계대전의 전쟁도구들 / 마생 MASSIN

142

## 포스트포에틱스 추천도서

MANUALS 2: DESIGN & IDENTITY GUIDELINES / MONO,KULTUR #34: BRIAN ENO / EATING AT HOTEL IL PELLICANO / INNER CITY OUT / NEUE WELT / ARTISTS' COCKTAILS / CINEMATOGRAPHY / AS SWEET AS IT GETS

147

## 한양툰크 추천도서

슬램덩크 / 심야식당 / 리틀 포레스트 / 사냥개 탐정 / 설국열차 / 원펀맨 / 밤을 걷는 선비 / Ho!

151

## 책방만일 추천도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위로하는 정신 / 잔혹함에 대하여 / 불안의 책 /
[하이브리드 총서] 파국의 지형학 /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 현실탐구단 보고서 04 /
출판, 노동, 목소리

154

## 땡스북스 추천도서

[제안들] 프란츠 카프카-꿈 / 글쓰기 좋은 질문
642 / 3시의 나 / 사랑은 혈투 / 오래된 빛 / 세상을
여행하는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 GIRLS ON FILM,
BOYS ON FILM / 창조성을 지켜라

158

## 북바이북 추천도서

작은 책방 우리 책 쫌 팝니다 /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
장기 보수 시대 / 심야치유식당 / 백의 그림자 /
고래 / 지지않는다는 말

163

2016년 3월 21일

오늘의 동네서점

동네서점 앱에
등록된 서점 리스트 입니다.

168

동네서점 지도?
전시로 시작했다가 그만!

땡스북스
이기섭

006

동네서점 지도?
재미로 시작했다가 그만!

퍼니플랜
남반장

188

함께해주신 분들

190

# 동네서점 지도?
# 전시로 시작했다가 그만!

2015년 가을 '타이포잔치' 행사의 큐레이터를 맡아 '서울의 동네서점' 전시를 준비하며 서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400여 개의 동네서점들을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분류했고, 각각의 서점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 독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시도하는 곳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16개의 카테고리와 54개의 서점 리스트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한정적인 조사로 인해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훌륭한 서점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불편했고, 이번에 조사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언젠가 다시 지도로 만들 기회를 갖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기회가 왔습니다. 퍼니플랜 남반장님으로부터 메일이 온 것입니다. 독립출판물 중심의 온라인 서점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만나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온라인 서점 지도'에 '서울의 동네서점' 정보를 합치고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남반장님이 추진 중인 '동네서점 앱' 프로젝트를 위해 다음 스토리펀딩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남반장님의 온라인 서점 지도와 동네서점 앱 덕분에 인쇄매체를 다루는 저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 소개하지 못한 아쉬운 정보들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쌓이면 종이책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동네서점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땡스북스
이기섭

2015년 12월 1일~
2016년 1월 6일

#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 보통의 책방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하루

**어서오세요, 오늘의 #동네서점**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연재됐던
동네 책방 운영자가 직접 기고한
책방의 하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책방무사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
2015.11.19
어서오세요,
책방무사의
요조에요.

# 2015년 12월 1일

# 책방 무사의 무사한 하루

# 북촌 한옥마을의 7평짜리 저의 작은 세계로 초대합니다.

**책방 무사**

**서울시 종로구 계동 2-127**
**안국역(3호선)에서 종로01 버스를 타고**
**원서고개에서 내리면 책방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책방은 보통 오전 11시 정도에 오픈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 집에서 꾸물대느라 12시가 다 되어 문을 열었네요. 가게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는 일은 노트북을 켜고 음악을 트는 일이에요. 일본의 쇼난 지방의 지역 라디오 방송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음악이 좋아 즐겨듣던 방송이었는데, 책방을 하면서 매일 틀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동안 책방을 눈으로 훑으면서 해야 할 일을 재빠르게 정리 해봅니다. 빈 책을 채우고, 꽃병의 물을 다시 채우고, 바닥을 한 번 쓸고 등등. 사람들과 차들이 하도 쓰러트려 너덜너덜해진 입간판을 책방 앞에 세우고 난로를 켜놓고 나면 대충 손님 맞을 준비는 완료됩니다.

그거 해서 돈 벌 수 있겠니?

손님들이 책방 무사가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 서점을 한다고 하니 저보다 주변에서 더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자고 책방 이름이 무사(無事)예요. 무사에서는 수익보다는 내가 좋은 책, 추천하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들을 팔아요. 서점 운영할 만큼만 벌자는 생각이에요.

언니 이거 진짜 맛없어요.

대충 가게 정리를 마치고,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애호가는 아닌데 핸드드립을 연습하느라 매일 내립니다. 요리도 감이 아니라 결국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이라고 제가 아는 요리사 언니가 그랬거든요.

안국역(3호선)에서
종로01 버스를 타고
원서고개에서 내리면
책방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빈 책을 채우고,
꽃 병의 물을 다시
채우고,바닥을 한 번
쓸고 등등.

손님들에게 가끔
커피를 내려 드리면
맛있다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저는 판매기록을 모두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게 왠지 정감 있고
낭만적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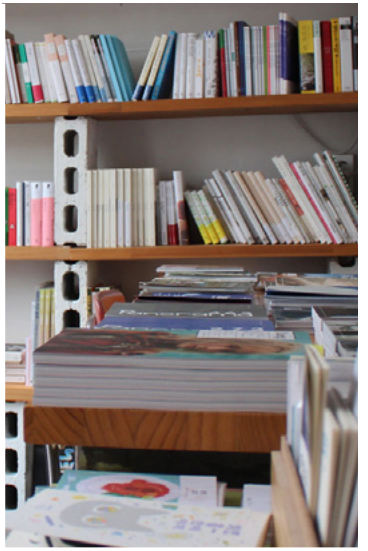
난로를 켜놓고 나면
대충 손님 맞을 준비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책방을 오픈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커피를 내렸을 때 마침 카페에서 일하는 아는 동생이 놀러왔길래 한 잔 권했더니, 그 싫은 소리 못하는 애가 "언니 이거 진짜 맛없어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두 달 가까이 내렸는데, 손님들에게 가끔 드리면 맛있다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예의상이겠지만요.

그게 왠지 정감 있고 낭만적이잖아요.

오늘도 역시 직접 내린 제법 마실 만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전날 판매한 책들을 출판사별로, 작가별로 정리합니다. 저는 판매기록을 모두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게 왠지 정감 있고 낭만적이잖아요. 농담이고, 제가 엑셀을 아직 못 다룹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손님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속속 도착하는 택배박스를 풀어서 책들 정리하고 재배치하고, 메일을 틈틈이 확인하면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고, 궁금한 걸 물어오시는 분들께 답변해드리고, 입고 문의가 들어오면 어떤 책인지 확인하고, 거절 메일도 보내고, 꼭 입고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부탁 메일도 보내고, 왜 책이 아직 도착 안 했냐는 메일에 쩔쩔매는 답장도 보내고… 정말 엄청난 만큼의 메일을 확인하고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손님들이 한번에 많이 몰릴 때도 있고 약속한 듯 조용한 날도 있습니다. 많이 몰릴 때는 정신없는 재미가 있고, 또 조용한 날은 한적한 재미가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들을 한 권 두 권 섭렵하다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손님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많이 몰릴 때도, 또
조용한 날도 그 날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도
가끔 서점에 들러서
놀다가시곤 해요.

빙봉군이 동네
커피 사장님께 책을
대여해주고 정말
맛있는 핫초코를
얻어먹었습니다.

책방 무사는 여섯 시
전후로 문을 닫습니다.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이 놀러오거나 출판사 관계자 분들, 혹은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 몰릴 때도, 또 조용한 날도 그날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사 서해문집 담당자께서 오셔서 한참 얘기하다 가시고, 또 풋풋한 두 젊은이가 찾아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독립서점과 함께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주민들과 소통하는 책방의 소소한 즐거움.

책방을 열면서 주변의 가게들과 친해지게 된 것도 책방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는 가끔 책방이 닫혀 있을 때 택배를 대신 받아주시곤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방을 준비할 때부터 동네의 여러 가게 사장님께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셨어요. 카페 공드리, 버튼 디자인 숍 MIK, 설렁탕집 하동옥…
원서동 쪽으로 언덕을 넘어가면 보이는 작은 옷가게 GRAB 사장님이 얼마전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신다기에 유럽의 디저트 요리 투어책을 빌려드리기도 했고, 바로 그 근처 동네 커피 사장님께서는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찾으시기에 빌려드리고 정말 맛있는 핫초코를 얻어왔답니다.

그리고 늘 무사하세요.

이 동네는 지리적 특성상 하루의 사이클이 일찍 시작되고 일찍 끝나요. 근처에 한옥마을이 있어서 밤문화를 대표하는 술집 같은 것이 많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오후 다섯 시 정도 되어 해가 어둑어둑 해지면 벌써 동네는 조용해집니다. 저도 슬슬 퇴근 준비를 하죠. 어쩌다 밤 손님들이 몰리는 날에는 더 늦게 마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섯 시 전후로 책방은 문을 닫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방 주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요즘 동네서점들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번 펀딩이 잘되면 동네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네서점 지도 스마트폰 앱과 소책자를 발행할 거래요. 사람들이 서점에 많이 가고 책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참 별거 없는 하루인데 쓰다 보니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좁은 공간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요. 7평짜리 저의 작은 세계 속 책들이 슬그머니 궁금해질 때 책방무사에도 한번 가볍게 들러주세요. 그리고 늘 무사하세요.

책방 무사에서
요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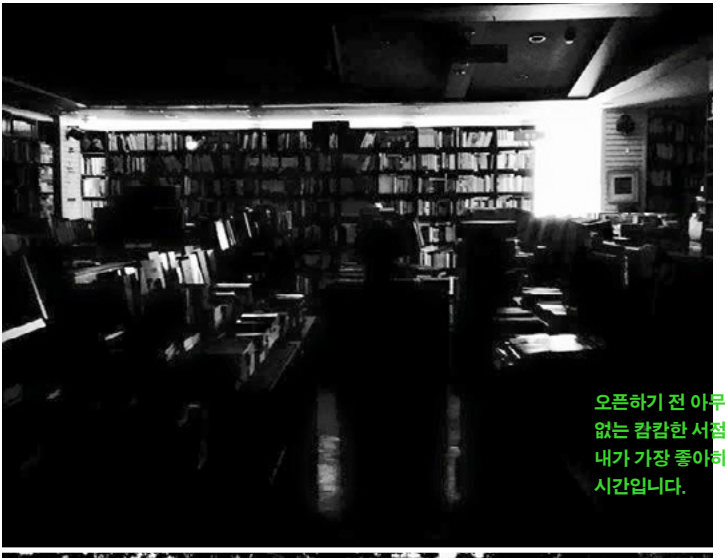
# 2015년 12월 9일

# 진주문고의 하루

# 정감 넘치는
# 진주문고로 놀러오세요.

**진주문고**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3-3**
**관능적이고 날카로운 서점,**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서점 진주문고입니다.**



오픈하기 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서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우리 서점 앞에는
장이 섭니다.

어서오세요, 진주문고 매니저 정도선입니다. 오픈하기 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서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간밤에 그윽하게 토해낸 책 내음, 심연과도 같은 적막감, 흐트러진 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무언가가 나를 에워싸는 느낌이죠.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나와 책 둘만의 시간, 베인 마음을 다듬는 시간, 내 몸에 축복을 축적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서점은 오래도록 그렇게 나를 위로해왔죠. 그리고 나 또한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서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따뜻한 곳인지, 왜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딸기 값은 안 받고
다라이 값만 받습니더!

매주 금요일 아침 우리 서점 앞에는 장이 섭니다. 억양이 다소 투박하여 언뜻 들으면 싸우는 듯한 흥정 소리와 생선 비린내가 서점 안에 맴돌아 가끔 불편하지만 대체로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를 전하죠. 게다가 서점 앞 시장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잊혀가는 서점과 잊혀가는 시장,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인가요. 이 얼마나 눈물겨운 조합인가요.

하지만 풍물패가 등장하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풍물패 소리로 서점이 요란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첫 손님은 오셨어요. 어머니와 어린아이였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동화책 좀 사줄까, 아들?"

아들(대략 6~7세): "뭘! 집에 많잖아. 엄마 잡지나 사."

엄마: "…"

아, 오늘은 첫 손님들부터 대박이다.

시공간이 뒤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서점에서 일해서요.

풍물패는 마치 "오늘은 우리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허락지 않아"라는 뉘앙스로 서점을 점령해갑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한쪽 귀를 막고 울리는 전화를 받아요. (띠리리리)

점원: "네, 안녕하세요. 진주문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텔레마케터: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무슨 잡지인데요. 이번에 저희 잡지를 정기구독 하시면 OOO짜리를 OOO원에 보실 수 있어요."

점원: "네, 필요 없습니다."

텔레마케터: "혹시 학생이세요? 제가 그럼 남학생들 좋아하는 맥O 잡지도 부록으로 드릴게요."

점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텔레마케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풍물패
소리로 서절이
요란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첫 손님은
오셨어요.

첫 손님은 어머니와
어린아이였고 뜻밖의
대화를 나눕니다.

점원: "저기 죄송한데, 제가 서점에서 일해서요. 원한다면 그 잡지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텔레마케터: "아, 서점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서점에서 사보는 거랑 집에서 받아보는 건 또 느낌이 달라요. 정기구독해 보세요."
점원: "…"
그 다른 느낌이 뭔지 궁금해 정기구독을 할 뻔했네요. 휴~!

## 마음이 심란할 땐 일에 집중하는 게 최고죠.

오늘은 우리 지역 진주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획을 하려 합니다. 바로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 코너인데요.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후, 경남 지역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옳고 그른 건 서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지역 현안을 서점이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와 주민과 서점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지역서점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경남도지사에게 여러 가지 책을 추천했는데 그중 가장 추천하는 책은 단연 '개념원리'입니다. 물론 '개념을 가져라'라는 1차원적인 뜻에서 추천한 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뭐냐고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판단은 당신의 몫."

## 평생 이 책 한 권 읽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이가!

"이레 재밌는 걸 여지껏 모르고 산 세월이 원망스럽다."

한 할아버지께서 어린이용 선덕여왕을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고 계시네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어 할아버지께 왜 어린이 책을 읽고 계시냐 물으니 작년에 한글을 배우셨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나를 흔들고 지나갔어요. 누군가에겐 평생소원이었던 책 읽기. 나는 너무나 가볍게만, 고마움을 모르고만 살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이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행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등한시하고 살지는 않았나. 당신에게 책 읽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 내 손주들은 이깟 곳에서 일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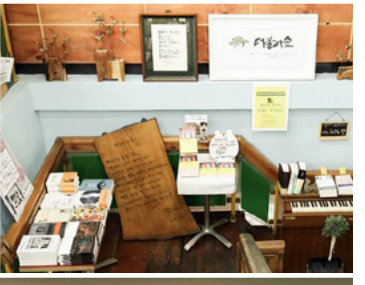
할아버지를 통해 느꼈던 따뜻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상이 등장한 겁니다.
할아버지: "이놈의 서점이 왜 또 잡지 가격을 올린 거야!"
점원: "손님, 정가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잡지사에서 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됐고! 저번 가격으로 팔어!"
점원: "죄송합니다.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어린놈의 ××가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따지고 들어 이 호로 ××야!"
점원: "(마음을 가다듬고) 어르신, 제가 서점에서 해드려야 하는 서비스를 못 해드렸거나,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욕을 달게 받겠으나, 정가 인상된 것 때문에 그런 욕까지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하세요."
할아버지: "(더욱 격앙되어) 야 이 ×××야 이 ×××× 이 싸가지가

당신에게
책 읽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서점에서
일해서요

누군기에겐
평생소원이었던
책 읽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나요?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
코너 중 단연
추천하는 책은
〈개념원리〉입니다.



×××× ×××× ××야!”

점원: “(심호흡으로 가다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들이 여기서 일해도 이렇게 대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내 손주들은 이깟 곳에서 일 안 해!”

점원: “…”

그날, 직원은 집으로 돌아가 퉁퉁 부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삼켰다는 슬픈 이야기.

## 난중일기 저자는 왜 신간을 내지 않는 거요?

서점 일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비스직이기에 오전, 오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며, 주말에 쉴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가끔 인성이 엉망인 손님을 상대하는 일도 있죠.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노동으로 술 한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책을 수시로 나르는 중노동일 때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아하게 책을 진열한다든지, 쉬는시간이면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건 환상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책을 좋아한다면 서점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독자가 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아마 ‘책’이라는 물성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여타 서비스직과는 달리 지식을 다룬다는 자부심일 거예요.

손님: “난중일기 저자는 왜 신간을 내지 않는 거요?”

점원: “네, 돌아가셨으니까요.”
손님: “제가 책을 사서 읽고 난 후 다시 가지고 오면
다른 책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점원: “아니요… 그럼 저희가 돈을 못 벌지요.”
손님: “서점에 웬 책이 이렇게 많아?”
점원: ‘(속으로)수영장에 웬 물이 이렇게 많아? 산에 웬 나무가
이렇게 많아? 바닷물이 왜 이렇게 짜? 냉장고 안이 왜 이렇게
춥지? 라면에 웬 스프가 들어 있어?’
손님: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 좀 찾아주세요.”
점원: “…”
손님: “‘아프리카 청춘이다’ 좀.”
점원: “…”
손님: “‘멈추니까 청춘이다’ 좀.” “‘삐꾸씨의 행복여행’ 좀.”

서점은 작은 우주와 같아요.

살아가면서 도무지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고 겪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인생을 안고 서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느 순간 그것들은 내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곤 하죠.
서점이라는 곳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빈껍데기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서점은 작은 우주와 같아요. 저 아이가 언젠가 “아저씨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묻는 날도 오겠죠.

저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들이 주름잡고 있습니다. 발품 팔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책을 주문할 수 있고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한 현실, 도무지 이 게임에서 동네서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네서점이 분명히 존재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동네서점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통을 통해 서로 보듬고, 나와 지역을 만드는 기적이 만들어지죠. 그것은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이 아닌 바로 동네서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주문고를 비롯한 동네서점들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휘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곳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가까운 동네서점으로 오세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저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주문고 매니저
정도선 드림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서점
진주문고 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OKTIQUE
CLOSED

# 2015년 12월 11일

## 서울 강남에서
## 20년 만에 오픈한
## 콜라보서점 북티크의 하루

## 불금의 심야서점으로
## 놀러오세요.

**콜라보서점 북티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5**
**책과 문화와 독자를 만나는 공간.**
**서점, 카페, 공연, 독자학교,**
**독서모임, 토론, 강연, 강좌, 대관.**

어서 오세요, 콜라보서점 북티크의 박종원입니다. 오늘은 핫한 불금이네요. 출근하자마자 저녁에 있을 행사 준비로 서점이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 3주 전 그 밤' 행사와 '심야서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북티크는 작은 서점이지만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만남은 곧 소통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를 위한 맞춤형 이벤트를 수시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간 밀린 리모델링도 끝내야 합니다. 통로에 매대 설치, 뒷공간 서가 정리, 창고 정리 등등 온종일 옮기고 만들고 치우며 정신없는 오후를 보냈어요. 이제 작은 공간까지 책을 채워 넣는 일이 남았네요. 작지만 알찬 공간, 선별한 좋은 책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책을 읽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동네서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죠?

## 북티크는 논현역 8번 출구 근처에 있어요.

저 멀리 교보문고가 보이네요. 교보문고가 가까이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대형서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작은 서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독자끼리 만나는 공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처에 대형서점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럼요. 암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하하하."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강남에서 20년 만에 오픈한 서점이더라고요. 벌써 저녁이 됐네요. 오늘은 특별히 책 읽는 싱글 남녀를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름하야~ '크리스마스 3주 전 그 밤: 책으로 취향 저격.' 총 40여 명의 남녀 독자 분들이 오실

어서오세요,
책이 필요한 순간
콜라보서점
북티크입니다.

책 읽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어느 날 북티크의
심야서점 새벽2시.

북티크 심야서점은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해요.

예정이에요. 점장님은 와인과 다과를, 권 매니저는 MC로 나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티크 팀원들은 기획부터 홍보, 진행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역할을 해요. 적은 인원이지만, 일인다역을 잘해내 줘서 북티크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 책 읽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책 좋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주변에 책 읽는 친구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책 읽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티 내지 않고 혼자 읽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니 책 읽는 사람끼리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들끼리 친해지게 하고, 아직 책과 친하지 않은 분들도 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각종 이벤트 외에도 독서모임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책 읽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책을 잘 안 읽던 분들도 함께 모임을 하다 보면 독서가 훨씬 더 쉬워지기도 하고요.

### 북티크 심야서점은 보통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해요.

오늘은 앞에 행사가 있었어서 11시부터 시작했어요. 제게는 매주 금요일 밤, 심야서점 시간이 가장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도 읽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요. 혼자가 아니라서 쉽게 잠이 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새벽 2시. 이 시간엔 오신 분들과 함께 북 토크도 진행합니다. 심야서점 처음 하던 날, 한두 명만 오시면

여러 행사를 통해
독자들끼리 친해질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싶어요.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레? 10시가 되기도 전에 한 분, 한 분 오시더니… 결국 15분이나 오셨어요!" 심야서점 참가 인원을 모집할 때 끝까지 남아 있을 분들을 위해 모집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 있었는데요.

"아침까지 살아남은 분께 국밥 쏠게요." 그리고 새벽 6시까지 남은 우리 여섯은 함께 서점 근처 '아지매 국밥'에서 심야서점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쿨하게 헤어졌답니다.

심야서점에는 가끔 당황스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 심야서점의 새벽 2시. 저는 커피를 더 내드리고 다과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도 깰 겸 같이 이야기나 나눠요." 평소와 달리 전 목소리가 떨립니다. (설렘이 아닌 두려움) 그날 뜻밖에도 저 포함 심야서점 참가자 7명이 모두 다 남자였어요. 북 토크를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죠.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문학과 대학생, 직업군인, 방송국 PD, 출판 마케터 등 다들 잘생기고 훤칠한 훈남들이더군요. 처음엔 남자들끼리 무슨 얘길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걸? 1시간 반이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남(?)들의 수다'를 떨었죠. 훈훈하게 마무리됐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심야 북 토크'는 보통 새벽 2시부터 1시간가량 해요.

"행사하고 와인이 조금 남았는데 드실래요?" (기다렸다는 듯 모두) "네." 새로 오신 분과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한데 섞여 와인과 맥주를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결국 아침 6시. 2차는 또 아지매 국밥집으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은 또 무슨 책을 읽을까,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여유 있게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모임을 통해 독자들끼리 친해질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싶어요.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책을 읽기 전에 대화한다는 것.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독서의 시작 아닐까요? 책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렇게 북티크는 책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서점이고 싶습니다. 에고,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골목길 벽서를 만드는 밤샘작업 후에 이 글을 적네요. 오로지 독자를 위한 일이죠. 요즘 예쁘고 개성 넘치는 작은 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판매용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북티크의 심야서점 자주 놀러오세요.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북티크 대표
박종원 드림

# 2015년 12월 23일

# 제주 동쪽 끝
# 소심한 책방의 하루

## 혼저옵서예!

**소심한 책방**

**제주시 구좌읍 종달동길 29-6**
**제주 동쪽 끝 마을, 종달리의 작고 작은 동네책방.**

혼저옵서예! 반갑수다! 여기는 제주의 동쪽 끝 마을 종달리에 있는 작고 작은 동네책방 '소심한 책방'입니다. 저희는 소심한 책방을 지키고 있는 장인애, 현미라입니다.

"무사 이제 와?"

"애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어린이 집 보내고 와요".

"%*^#$!%^@#%"

"네 ^_^;;;"

마스터 H는 제주 생활 5년 차가 되었고, 마스터 J는 제주를 오간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반도 못 알아듣는 삼촌(제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성별의 구분 없이 부르는 호칭)들의 제주 방언엔 웃음으로 화답해요. 책방 앞 퐁낭은 삼촌들의 사랑채 같은 곳이라 한 겨울을 제외하곤 늘 그곳에 앉으셔서 저희가 3분만 늦게 오픈해도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손님들에게 길 안내, 주차 안내까지 해주시곤 해요.

"누가 요새 책을 산다케.
니 서점 해서 망해서 육지 올라감서"

책 파는 서점을 한다고 했을 때, 삼촌들은 퐁낭에 모여서, 얘가 이제 망해서 육지에 올라가게 생겼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다행히 책방은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숨어 있기 좋은 공간으로 남아 삼촌들이랑 오래오래 함께하려구요. 출근을 하면 먼저 퐁낭에 앉아 계신 삼촌들에게 음료배달을 하는 것으로 오픈 준비를 합니다. 책방엔 책 이외에도 연필과 엽서 같은 문구류가 있는데, 연필이 가방

책방 앞 평상은 삼촌들의 사랑채 같은 곳이라
한겨울을 제외하곤 늘 그곳에 앉으셔서,
저희가 3분만 늦게 오픈해도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손님들에게 길 안내, 주차
안내까지 해 주시곤 해요.

종달리 작은 골목,
이웃집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소심한책방

레몬차
한잔 드세요.

가내수공업 공장
소심한 책방입니다.

소심한 책방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어오는 명당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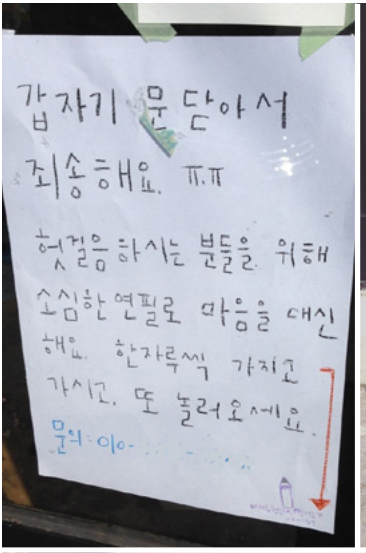
속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니 아찔해지더라구요. 급히 눈에 보이는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 담아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철 지난 잡지와 일력 등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은 몽땅 종이봉투 접기에 동원되고 있어요. 연필 외에 엽서와 책 포장도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는데, 종이봉투를 하염없이 접다보면 가끔은 "너무 구질구질한 거 아니야!" "세련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하지만 이런 허술한 것들을 반가워해주시고, 소심한 책방이라서 잘 어울린다는 손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끔 딜레마에 빠지긴 해요. "종이봉투 접는 시간에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하는 게 아닐까."

### 디자인 일 하셨어요?
### 출판 계열에서 있으셨어요?

책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디자인 일 하셨어요?" "출판 계열에 있으셨어요?"예요. 저희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무척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예술과 창의성을 요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다만 저희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서점에서 책에 둘러 쌓여 있는 시간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고루한 직장생활을 버텼다는 거예요. 책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직장에서 벗어나 얽매이는 것 없는 제주의 작은 책방인 데다, 손님이 오실 확률보다는 안 오실 확률이 더 높다 보니 무슨 일이 있으면 쿨하게 문 닫고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동네 분들 외에도 관광객이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누군가 첫 제주 여행에 버스를 2시간씩 타고 이 골목까지 찾아왔는데, 문 닫힌 책방을 보고 허망해 할 것을 생각하면 생각처럼 쉽게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책방 운영 2년 차.
처음엔 점심밥도 못 먹고 책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 만난 손님들에게 책방을 부탁하고 밥을 먹고 오기도 하구요.
"금방 가실거예요?"
"네? 왜요?"
"저, 배가 고픈데 저희 올 때까지 있어주실래요?"
죄송한 마음에 다급하게 밥을 먹고 돌아오면 오히려 책방을 지켜준 손님분께서 이 작은 책방이 잠시나마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아 기뻤다고 이야기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득이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는 아쉬운 마음을 연필 한 자루에 남겨두고 가기도 해요. 주말 책방을 지켜주는 요정도 뽑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주말이면 책방에도 아이에게도 집중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라 저희에겐 요정 같은 존재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팅커벨이나 레골라스 같은 미모의 꽃 요정은 못 되더라도 도비나 신데렐라의 할매요정 같은 귀엽고 충실하고 튼튼한 요정이 될 자신이 있다며 함께해주는 주말 요정님이 벌써 2호째예요. 종종 손님들이 알아채시고 "요정님이세요?" 물으면, 우리의 요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마을 안에 있는 책방이다 보니,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처럼 이용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카페나 식당과는



잠시 문을 닫을 땐
소심한 주인의 마음을
연필에 담아.

마을 안에 있는
책방이다 보니,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처럼
이용하기도 해요.

다른 분위기이고 아이들이 볼 만한 동화책이나 팝업북도 있다 보니 부모님이 바쁘실 땐 아이들끼리만 놀러와 책을 보기도 하죠.
두 마스터의 딸들도 엄마의 품이 그리워 책방에서 함께 하루를 보낼 때면, 저희가 꿈꿨던 책방의 무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지요.
끄응. 새 책이 도착하는 날엔 진열을 해두고도 설레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 서가를 몇 바퀴씩 돌아보며 책등을 쓸어보는 게 마스터가 누리는 호사라고 생각해요. 진열을 미처 못 하고 퇴근하거나 보고 싶은 책이 아른거리면 아이를 재운 뒤 다시 책방에 나오곤 하는데요, 바람에 갈대가 샤르륵 흔들리는 소리와 뽀얀 달빛의 길 끝에서 마주하는 책방은 늘 위로가 되곤 해요.

일 년에 몇 번쯤은
꽤 근사한 공연장으로
변신하기도 해요.

소심한 책방은 이렇게나 작고 남루한 공간이지만 일 년에 몇 번쯤은 꽤 근사한 공연장으로 변신하기도 해요. 모두가 둘러앉으면 스무 명 남짓인 작은 공간 덕분에 낯선 서로가 금세 다정해지지요.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 노랫소리에 숨겨진 그리운 사연도, 책 한 구절을 향한 눈빛, 침묵으로 이어지는 순간들까지 모두 자신만의 것이 되어 소심한 책방은 곧 감성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책방의 운영자로서 그런 순간들을 지켜보는 일은 참 흐뭇해요.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있어요. 모든 감각을 열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노래를, 읊어주는 책의 한 구절을 오롯이 흡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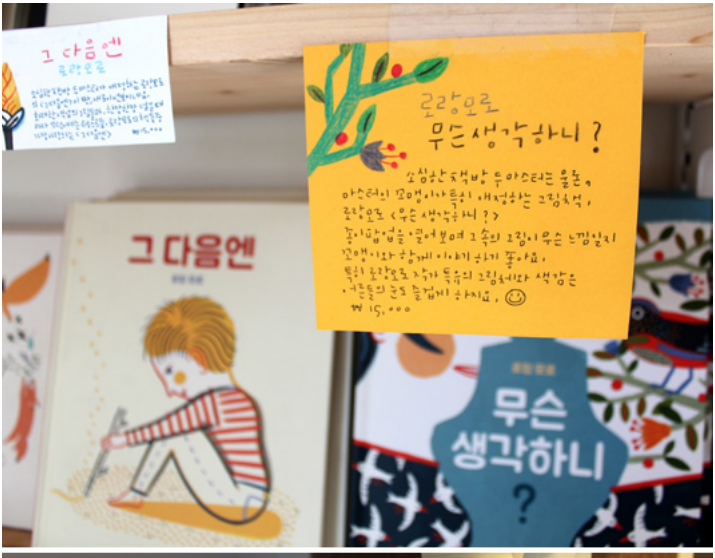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두렵지 않죠. 그래서인지 때때로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희도 괜히 눈물이 나고요. 사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꽤 험난합니다. 소심한 책방의 서가는 예전에 방으로 쓰던 공간이 서재로 바뀐 거라서, 두 개의 미닫이 문이 있어요. 공연을 위해서는 그 무거운 미닫이 문을 떼어 작업실로 옮겨놓아야 하는데, 무게가 대단해서 여자인 저희 둘이 그 문을 떼고 나면 일단 고기 생각이 납니다. 처음 이 문을 옮겼던 날은 몸살과 근육통에 죽을 것 같더니 이 일도 요령이 생기니까 쉬워지더군요. 절대 저희 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공연이 있는 날은 특별히 다과도 차려놓습니다. 겨울철에는 와인과 과일을 맛나게 끓인 뱅쇼를 냄비째 따끈한 난로 위에 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소심한 책방을 애정하는 분의 선물로 근사한 쿠키와 케이크를 맛보는 날도 생기지요. 또 언젠가는 서가 바닥에 모두가 드러누워 막걸리에 홍어무침이나 파전 같은 걸 먹으며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실 분 있나요? 때때로 소심한 책방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물 받은 CD 한 장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요. "아~ 참 좋다. 좋다" 하고 혼잣말을 반복하다가 그 노래들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책장의 먼지를 닦다 문득, '이 노래가 이 작고 남루한 책방에 흐른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며칠을 썼다 지웠다 하며 한 통의 편지를 완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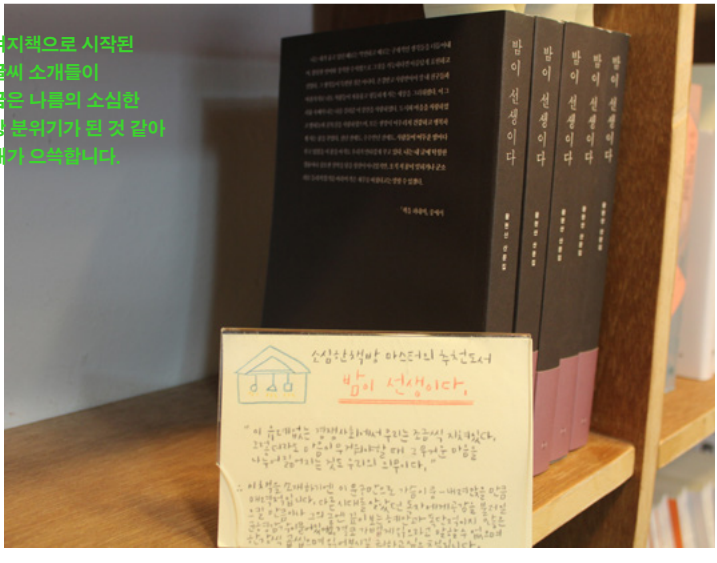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당신의 노래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공간 덕분에
낯선 서로가
다정해지는 중.

공연 때마다
책방 돌담 뒤에
켜두는 촛불들.

관객과 무척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굴하지
않았던 시와님.




궁여지책으로 시작된
손글씨 소개들이
지금은 나름의 소심한
책방 분위기가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대가 없는 간절함이 통할까요?
네, 통해요. 답장이 왔거든요.
"저는 목소리와 기타만 가지고 노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연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모두들 조금쯤은 달라진 자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제주의 바람과 머리 위로 훌쩍 커져 있는 달, 저 멀리 어스름히 보이는 오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분들께 조용히 안녕을 바라고, 책방을 정리하죠. 책방의 책들도 오늘의 노래와 모여주신 분들의 마음 덕분에 또 다른 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 거죠?

## 소심한 책방의 손글씨.

소심한 책방 여기저기에는 추천도서 코멘트라든가, 책이나 상품의 정보를 고운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들이 꽤 있어요. 사실 책의 정보를 써서 붙여 두는 것은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소심한 책방과 함께하는 책들 중에는 근사한 책들이 참 많은데, 겉표지만 보고는 한 페이지도 넘겨지지 않는다거나, 눈에 띄지 못하는 진열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책을 구해내기 위해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네모 반듯한 종이 위에 굵은 테두리를 쫙 두르고, 반듯한 글자체로 명료하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컴퓨터를 잘 몰라요. 게다가 처음엔 책방에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었거든요. 궁여지책으로 시작된 손글씨 소개가 지금은 나름 소심한 책방만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응?) 손글씨를 쓴 마스터 J의 어깨가 으쓱합니다. 실제로 손글씨가 써 붙여진 도서의 판매량이 다른 도서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건 안 비밀! 요즘에는 멋진 문구들을 필사하는 것으로 힐링을 권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던데, 실제로 저희 역시 애정하는 도서의 소개글을 종이 위에 적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낍니다.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참 쉬워진 요즘이지만, 시간과 손끝의 힘을 들여 직접 종이 위에 적어내린 메시지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오늘 밤, A4용지 위에 마음과 힘을 다해 연애편지 한 장 어떠세요?
(대필이 필요하신가요? 연락주세요. 으흥)

숨어 있기 좋은 방,
전망 좋은 방,
자기만의 방.

저희는 소심한 책방이 '숨어 있기 좋은 방, 전망 좋은 방, 자기만의 방'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시골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작은 책방이 결국 자신만의 아지트가 되어 지쳤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메말랐던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죠. 이 공간에는 여느 대형서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책들도 있지만, 작은 동네책방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세련되지 않아 오히려 내 마음을 내어 놓기 편한 특별한 기운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심한 책방은 맨 처음, 아주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벽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벽은 소심한 책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손길로 하나씩 따뜻해졌습니다. 페인트 칠을
도와주신 여행자 분들, 책방엔 이런 것도 필요하다며 뚝딱뚝딱
테이블을 만들어 주신 동네 목사님, 지금 막 부친 부침개를 나눠준
앞집 삼촌과 책방 의자에 앉아 긴 편지를 남기고 가신 손님.
작고 작은 동네의 책방이기에 가능한 마음의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간들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언제고
다시 찾아와 주실 분들 곁에 있고 싶어요.
소심한 책방으로 와주세요.
계절에 맞는 향기로운 차 한잔 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제주의 동쪽 끝 종달리에서
소심한 책방
장인애, 현미라 드림

# 2015년 12월 30일

# 속초 동아서점의 하루

# 서점 직원의
# 책 선물 고르는 팁

**속초 동아서점**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08**
**강원도 속초에서 59년째 운영 중인 동네서점.**

어서오세요, 속초 동아서점 직원 김영건입니다. 서점 SNS와 도서 검색대에서 언제든지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선물로서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동아서점은 퍼블리와 함께 '속초로부터 온 단 하나의 선물'이라는 크리스마스·연말 맞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책을 선물하고 싶은 분에 관한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각 의뢰서를 읽고 마땅한(?) 책을 골라 보내드리는 '맞춤형 책 선물' 이벤트였는데요. 총 60명 한정으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글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모두 책을 받으셨겠죠?"

### 첫 번째 팁:
### '에세이'는 '어디에나' 있다.

에세이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오로지 에세이 코너에서만 책을 찾지 마세요. 선물할 책을 고르려고 하면, (상대가 비교적 취향이 뚜렷한 애독가이거나 다독가가 아닌 이상) 발걸음은 자연스레 에세이 코너로 향합니다. 일상에서의 단상을 담고 있는 읽기 편한 '에세이'만의 형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점 직원으로 일하며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에세이'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심리 코너에는 심리 에세이가, 철학 코너에는 철학 에세이가, 시 코너에는 시에 관한 에세이가, 건강 코너에는 건강에 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정치/사회, 음악, 영화, 요리 등등. 에세이는 거의 전 분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세이 코너에서만 에세이를 찾지 마시고, 모든 코너에서 에세이를 찾아보세요. 노년을 앞둔 어머니께

책 선물이 좋은 이유?
함께 동참(책 읽기)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엄마, 사라지지 마》
한설희/북노마드

《마음에 대해 달리기가
말해주는 것들》
사콩 미팜/불광출판사

늘 사랑한다는 말을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딸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에세이 코너에서 서성거렸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사진 코너로 발걸음을 옮겨봤어요. 사진집은 일단 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읽기 편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엄마, 사라지지 마》(한설희/북노마드)

72세 딸이 96세 엄마의 곁에 머물며, 2년 동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책이에요. 제목도 너무 좋고 '딸이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사연과 딱 어울린다는 생각에 이 책을 골랐죠.

두 번째 팁: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단 때론 살짝 숨겨서 전할 것.

평상시에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상대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린 아마 그 편지를 고이고이 접어서 상대에게 전할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선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가 있을 때, 너무 직접적이지 않도록 조금 우회하는 것도 좋아요. 낙담해 있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상대가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다는 사연을 특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의 책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책들이 인쇄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요. 하지만 우린 조금 더 정직하고 묵직한 위로를 건네고 싶어요. '괜찮아?' 하고 묻고 말기보단 '괜찮아' 말하며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마음에 대해 달리기가 말해주는 것들》(사콩 미팜/불광출판사)

'명상'과 '달리기'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행위의 공통점을 엮어 우리에게 명상법과 달리기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명상에도 달리기에도 관심 없는 분은 갸우뚱하시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천천히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려 깊은 책이에요.

세 번째 팁:
'자기계발'보다는 '인문' 코너로 가보기.

진정한 의미로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다면, 과감히 자기계발 코너를 외면하시길 권해드려요. 잠깐 도움이 되고 잊히는 책보다는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은 어떨까요?
인문 코너, 철학 코너에 가보면 생각보다 쉽고 길게 봤을 때 도움될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대화법, 처세 등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코너에 있어요.
《삶의 기술 사전》(안드레아스 브레너 외/문학동네)
'자기계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께 추천해드린 책입니다. 삶을 천천히, 거리를 두고 사유해보자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에 대해 '기술'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재밌어요. '생각하는 일'이라는 게 실제로 기술의 일종인 것 같기도 해요. 배우고 터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삶의 기술 사전》
안드레아스
브레너 외/문학동네

네 번째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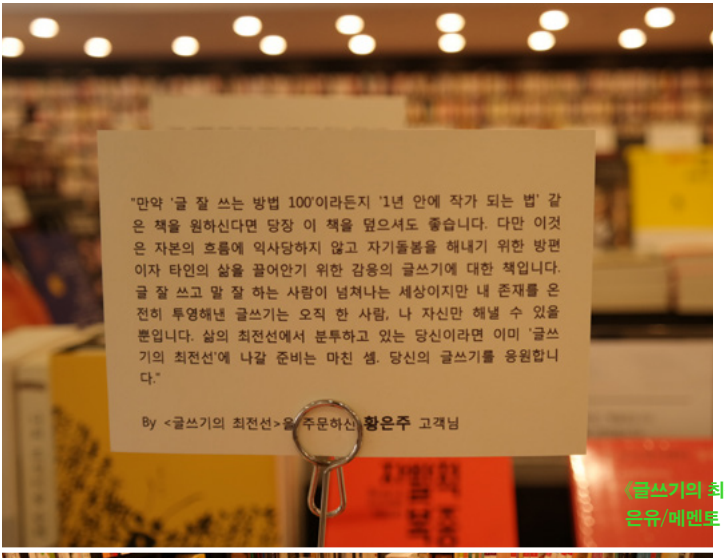
'타인의 취향'을 믿고 골라보기.

상대의 취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면, 제삼자의 취향을 믿고 그냥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샌 많은 곳에서 믿음 가는 분들이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시기도 하죠. 신문부터 시작해서 TV 프로그램, 팟캐스트, 사소하게는 SNS까지 말이에요. 저희 서점도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며 '타인의 취향'이라는 제목으로 작게 코너를 마련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동아서점의 고객님들께서 주문하신 책 중 스무 권 남짓을 추려서 소개하는 기획전이에요. 주문하신 고객님들께서 직접 책 소개 글귀를 써주셔서 더욱 쉽게 책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황은주 고객님께서 써주신 '글쓰기의 최전선' 소개 글귀인데요, 자연스럽게 책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멋진 멘트였어요. 글쓰기 관련 책들이 유독 많이 출간되었던 지난해, 그중에서 특히 돋보였던 책이지요.

다섯 번 째 팁:

어린이, 청소년 코너는 어린이, 청소년 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 코너에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계시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한 번쯤은 어린이 코너나 청소년 코너에 꽂힌 책들을 펼쳐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는 단순 명확하면서도 철학적인 사유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 동화는 때론 장황하고 긴 소설보다 훨씬 감동적이고요.
청소년기에 이 책들만 잘 읽었어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메멘토

하는 회한(?)을 들게 하는 책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청소년 코너에는 특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린다는 것》(노석미/너머학교)

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책인데요. 이 책은 동아서점의 청소년 코너 서가에 꽂혀 있어요.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디자인에 관심 많으신 분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쉽고 진솔하게 적은 책이에요. 귀엽고 생생한 그림들이 함께 실려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책 선물이 좋은 이유?
함께 읽기 때문 아닐까요.

예쁜 목도리와 향긋한 차도 좋지만, 선물로서의 책은 다른 모든 상품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을 주는 분도 받는 분도, 진정으로 '주고' '받으려면' 읽는 행위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 읽고 나서 주고 받은 선물은 분명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연이 되리라 믿어요. 늘 새로운 사연이 기다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 서점으로, 여러분의 동네서점, 속초 동아서점으로 놀러오세요.

속초 동아서점
김영건 드림

《그린다는 것》
노석미/너머학교

도시여행자
DA05-1
삶은 여행
LIFE IS TRAVEL
TRAVEL IS LIFE
SINCE 2010
COFFEE
BOOK SHOP
CITY
TRAVELLER
여행카페
도시여행자
COFFEE TRAVEL
BOOK GALLERY

# 2016년 1월 6일

# 대전의 여행서점
# 도시여행자의 하루

## 여행을 읽어요.

도시여행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0-3
여행자카페, 동네서점,
여행&문화예술워크숍 Since 2010.

"대전 여행 중이세요?
대전을 안내해드릴까요?"

어서오세요, 여행자 카페 그리고 여행서점 도시여행자입니다. 대전을 여행한다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도시가 다른 곳에 비해 화려한 여행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도 꽤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콘텐츠가 넘쳐나요. 도시여행자가 위치한 동네, 문화예술의 거리로 불리는 대흥동. 저는 이 동네를 소개하기 위해 냅킨에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6시간 코스로 대흥동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행만을 주제로 한 공간은 아네요.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함께 행복하기', '함께 즐기며 살아가기', '사라져 가는 것' 등 평범하지만 쉽게 잊고 살아가는 가치들을 고민하며 살아요. 청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주제로 여행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대전은 여행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과 사람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커피와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 그리고 카페 손님들과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생각해요. 여행자 카페, 여행서점에 이어 여행 도서관을 운영해요. 동네 주민과 지역 예술가, 청년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여행 관련 서적과 다른 나라의 교통카드 등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요. 서점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손님들은 종종 헷갈려 해요. 1층에서 판매하는 책을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책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하게 여행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곤 해요.

### 처음엔 여행서점,
### 지금은 동네책방.

4년 전, 런던에서 여행서점 〈STANFORDS〉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 세계의 지도를 한곳에 모아놓은 것 같아 흥미로웠던 그 공간이 잊히지 않아요. 여행이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기에, 여행과 관련된 소품과 책자들로 공간을 채우면 많은 이들의 삶을 설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행과 관련된 책을 찾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여행에서 가져온 소품들이나 소설, 인문학, 사회 분야의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여행 콘셉트를 잃지 않되 다른 분야의 책들을 고루 서가에 채우며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정보의 양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분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맞추어 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책을 읽고 고를 수는 없어서 기대에 의해 책을 고를 때도 있어요. 단골손님의 추천을 통해 서가를 채우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행서점'보다는 '동네책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어서오세요,
여행자 카페
그리고 여행서점
도시여행자입니다.

CITY
TRAVELLER
도시여행자

## 처음에 서가를 채우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독립출판물과 달리 출판사들은 작은 서점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이백여 개의 출판사에 전화하며 좌절감도 느끼고, 기존의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혔어요. 작은 서점과 직접 거래를 하는 출판사를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몰라요. 최근에는 대형 서점보다 일주일 일찍 책을 보내주며 작은 서점을 응원하는 출판사와도 인연을 만들었어요. 여전히 책을 온전히 매입해 서가를 채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작은 서점을 응원해주는 힘이 전해져요. 단골손님들은 서점 주인의 재고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는지 책을 예약하곤 해요. 윤리적 소비 덕분에 우리도 한 걸음씩 더 내딛어요.

조그마한 책방에서 한 달에 몇 권의 책이 팔릴까 궁금하시죠?

"쉿, 비밀이에요. 책방에 방문하시면, 소곤소곤 귓속말로 답할게요."

## 책 속에 숨겨진 엽서를 찾아보세요.

책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보내고 있어요. 책을 고를 때의 설렘과 신중한 마음이 고스란히 가닿기를 바라요.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골랐는지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몇 책 사이에 짤막한 글을 적은 엽서를 꽂아 두었어요. 책을 들추다가 우연히 발견한 엽서를 보고 미소를 띠는 손님들의 표정을 몰래 지켜볼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책 속에 숨겨진
엽서를 찾아보세요.

읽지 않는 여행
가이드북과 에세이를
기부하면 커피를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외국
동전과 지폐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요.

여행, 삶, 예술이
함께하는 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곤 해요.

### 우리의 따뜻한 커피를 선물해요.

단골손님의 윤리적 소비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3만 원 이상 책을 구매하는 분들께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읽지 않는 여행 가이드북과 에세이를 도서관에
기부하시는 분들께도 커피를 선물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노란색
커버의 책을 구입하는 분들께 '노란 잠수함' 음료를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매달 1일과 16일, 홈리스 자활을 돕는 〈빅이슈〉 매거진을 들고
카페에 방문하셔도 커피를 선물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니,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국 동전과 지폐, 어떻게 하세요?

동전은 은행에 가도 바꾸어 주지 않아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출국장에 비치된 구호 단체 저금통이 항상 가득 차나 봐요.
책상 서랍 어딘가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용하지 않는 외국 동전과 지폐로도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음료와 바꾼 동전과 지폐를 모아 세계일주를 떠나려고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 여행 페스티벌 '시티 페스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삶은 여행Life is travel'이라는
주제로 여행, 삶, 예술이 함께하는 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도시의 산책 : 자신만의 신념으로 삶이란 여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 이야기〉 〈도시의 선율 : 아름다운 선율로 도시를 채워가는 뮤지션들의 공연〉 〈도시의 공존 : 공존이라는 가치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도시의 순간 : 다양한 도시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영화 상영회〉 등의 강연, 공연, 상영회가 열렸고요. 사라져가는 것들 중 하나인 일회용 카메라를 통해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고 기록하는 사진집 출판 워크숍 〈일상의 변주〉, 대전 대흥동을 여행문화지도로 그리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문화예술 워크숍도 함께 기획했어요.

### 책방 일기 #1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는 때때로 조그마한 상점들을 집어삼키곤 해요. 낭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 도시에, 소소한 것들이 작게나마 빛이 나기를 바라요.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곳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어디서 책을 사고, 어디서 커피를 마시는지. 도시여행자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일상의 호기심이랍니다.

### 책방 일기 #2

열 평 남짓한 공간이 책과 커피의 어렴풋한 냄새로 가득해요. 힘껏 으깨진 원두는 따듯한 물을 따라 흐른 뒤, 빙빙 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야 잔에 담기죠. 커피 맛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했던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맛에 대한 마땅한 단어를 나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득,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여행이 생각난다면
대전으로 오세요.
도시여행자에서
그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어제 손님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마셨던 커피의 맛은 꽤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혀에 느끼는 감각들을 텍스트로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즐거웠어요. 소박한 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는 이 도시가 빛나는 만큼 찬란했어요.

책방 일기 #3

이따금씩 홀로 커피를 내려 마시곤 해요. 함께 일했던 커피 디렉터 쌤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정성스레 내려줬던 커피를 마실 때와는 사뭇 다르네요. 카페와 책방에 손님이 없을 때면, 스스로에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위의 누군가를 작은 마음으로나마 응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곤 해요.

책방 일기 #4

공간을 사랑하다가, 거리와 사랑에 빠지고, 거리와 사랑하다보니, 도시와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문득,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여행이 생각난다면 대전으로 오세요. 도시여행자에서 그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도시여행자
김준태, 박은영 드림

# 2015년 10월 20일~
# 2015년 12월 27일

# 타이포잔치 프로젝트

# 서울의
# 동네서점

**타이포잔치**

**문화역서울284에서 진행된**
**'제4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입니다.**
**'서울의 동네서점' 전시는 그중 일부의 행사로**
**2015년 10월 20일~11월 19일 땡스북스와**
**11월 11일~12월 27일 문화역서울284에서 전시했습니다.**

# 서울의 동네 서점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 1.1 온마서적
- 1.2 행복한글간
- 1.3 예일문고
- 1.4 도원문고
- 1.5 대교서적
- 1.6 동양서림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들과 소통하는 서점

- 2.1 노원문고
- 2.2 연신내문고
- 2.3 불광문고
- 2.4 한강문고
- 2.5 홍익문고
- 2.6 맛빛문고

**3** 사회, 문화과학 서점

- 3.1 인서점
- 3.2 그날이오면
- 3.3 물무질
- 3.4 갑당서재
- 3.5 프루스트의 서재
- 3.6 레드북스

**4** 헌책방

- 4.1 이상한나라의 헌책방
- 4.2 공씨책방
- 4.3 기억속의서가
- 4.4 숨어있는책

SEOUL( )SOUL

2015
타이포잔치
도시문자업서전

C( )
T( )

**5** 고서점

51 통문관
종로구 인사동길 55-1

**6** 어린이서점

61 상상하는 빠뜨
종로구 동숭동로117

**7** 그림책서점

71 피노키오
서울구 성미산로 194-11

72 베로니카 이펙트
서울구 서울여성로2길 10

**8** 예술서점

81 더북소사이어티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82 북스테이지
종로구 대학로10길 17

83 심지
강남구 논현로 723

**9** 독립출판물 서점

91 유어마인드
서울구 서부신로20길 7

92 텔로인디북스
서울구 동교로40길 33

93 스토리지북앤 필름
종로구 신촌로 115-1

94 이곳
성동구 성수동로3길 2

95 반반북스
노원구 동일로 1456

96 노말에이
동구 장충단로7길 17 2층

97 다시서점
종로구 대사관로9길 21 1층

**10** 해외출판물 서점

101 포스트포에틱스
종로구 자하문로240 3층

102 온고당
서울구 서부신로105

103 매거진랜드
서울구 연대로8길 17

104 아이디앤북
서울구 서울여성로 139-2

**11** 만화서점

111 한양문크
서울구 홍지로8길 67

112 북새통문고
서울구 홍지로8길 17
공간일이

**12** 소규모 복합서점

121 책방안일
서울구 서부로8길 46

122 200/20
동구 성북로8길
서울시가 지날 2기 3층

123 오디너리북숍
성북구 성북로5길 1

124 책방요소
동구 동대로 437-1

125 책방오후다섯시
동대문구 홍지로20길 14 3층

**13** 귀어서점

131 햇빛서점
종로구 성균동
주서성로10길 84

**14** 전시가 있는 서점

141 책방이음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142 땡스북스
서울구 연대로28

**15** 술이 있는 서점

151 북바이북
서울구 동대문역로4-4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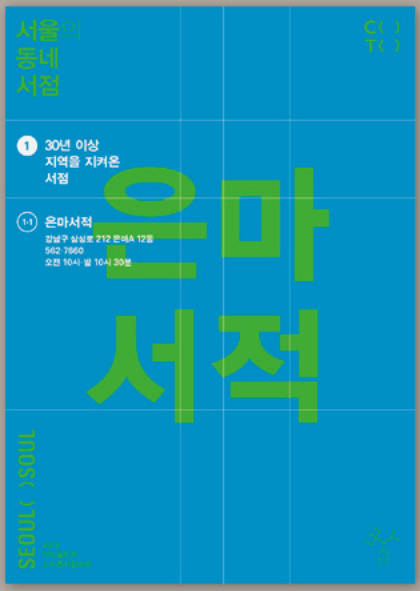
152 퇴근길책한잔
서울구 상중길208

**16** 여행서점

161 일단멈춤
서울구 상중길10길 9

162 집프리
서울구 연희로156
그리움이스페이 서울 2층
2223호

서울의
동네
서점
SEOUL ( ) SOUL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C( )
T( )

1-1 은마서적

대치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곳은 뜨거운
학구열만큼이나 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대형서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선 찾고자 하는
책을 다 찾을 수 있다는 동네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들과
소통하는 서점

C( )
T( )

2-1 노원문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곳이다. 세미나실은 연일
예약이 가득 차 있으며
북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큰 규모의
서점이 아니라 노원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5 고서점

C( )
T( )

5-1 통문관

1934년 관훈동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인사동거리의
터줏대감으로, 서점
자체가 역사인 곳이다.
근대의 고서들과 시,
수필의 초판본들을
만날 수 있어 오랜 시간
애서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2 소규모
복합서점

C( )
T( )

12-3 오디너리북숍

금호동 언덕 위에
위치한 이곳은 인문학,
소규모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련 중고도서 매입 및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점이다. 편하게 읽고
쓰는 작은 공간을 지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와
모임도 열린다.

서울에는 400여 개의 동네서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서점들 중에 독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시도하는 곳들을 소개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둔 것은 '다양성'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렌디한 서점들의 신선함, 시간의 역사를 간직한 중견 서점들의 친근함, 사회·문화·예술 등 전문 분야의 책을 다루는 서점들의 독특함 등 모두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네서점들의 다양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점 지도와 엽서를 만들었다. 선정 대상은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을 제외한 중간 규모를 포함한 동네서점으로 정했다. 카페 기능이 책 판매보다 중심인 곳들은 제외했다. 한정적인 취재로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훌륭한 서점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도시의 일상을 살며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의 일상에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즐겁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반갑고, 문화적 자극을 받으며 사는 것은 돈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은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서울의 다양한 동네서점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장소다. 잠시 시간을 내서 둘러본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동네
서점
SEOUL( )SOUL
C( )
T( )
Axt
Axt
Axt

서울의
동네
서점
SEOUL( )SOUL
SAMPLE
서울의
재발견

#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 1-1. 은마서적

대치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곳은 뜨거운 학구열만큼이나 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대형서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선 찾고자 하는 책을 다 찾을 수 있다는 동네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 (12동) 12
-562-7660
-오전 10시-밤 10시 30분

## 1-2. 행복한글간

양천향교역 근처에 자리한 이곳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파는 홈페이지가 아닌 고객센터를 따로 마련하는 등 더 좋은 방향으로 책과 고객을 연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강서구 강서로 466
-3661-6055
-www.gulgan.co.kr
-오전 10시-밤 9시

## 1-3. 예일문고

도봉구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이 삭막할 거라는 생각은 오해다. 매장 안내도와 서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있으면 구석구석 닿은 애정 어린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도봉구 노해로63길 84-3
-995-5206
-오전 12시-밤 10시

## 1-4. 도원문고

오랜 시간 동네를 지키고 있는 서점이다. 몇 년 전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모델 서점'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이후로 꾸준히 동네 어린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성동구 독서당로 294
-2233-4286
-오전 10시-밤 10시 30분

### 1-5. 대교서적

한때는 수십 곳의 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여의도에서 몇 안 남은 서점 중 하나이다. 1979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동네를 지키고 있으며 어린 아이였던 그때의 독자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찾는 곳이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780-6407
-오전 8시-밤 8시

### 1-6. 동양서림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주인공은 카뮈의 《이방인》을 사러 이곳에 들른다. 1953년에 창업한 동양서림은 70년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쭉 혜화로터리를 지키고 있는 서점이다. 서점 양옆의 문구점, 약국, 중식집 또한 혜화로터리를 지켜온 동지들로 이제는 서점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는 곳이다.

-종로구 창경궁로 271-1
-762-0715
-오전 8시-밤 9시 30분

##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들과 소통하는 서점

### 2-1. 노원문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곳이다. 세미나실은 연일 예약이 가득 차 있으며 북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큰 규모의 서점이 아니라 노원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노원구 동일로 1390
-951-0633
-www.nowonbook.com
-오전 10시-밤 10시

### 2-2. 연신내문고

연신내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편안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동네를 지키고 있다.

-은평구 통일로 861
-352-7600
-www.ysnbook.com
-오전 10시-밤 10시

## 2-3. 불광문고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이곳 덕에 동네 주민들은 복잡한 도심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서점에는 시기별로 직원들이 선정한 테마북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도서 구입 시 책값의 10%를 귀여운 쿠폰으로 돌려준다.

-은평구 통일로 742 대한생명
-383-4236
-www.bookmanse.com
-오전 10시-밤 10시

## 2-4. 한강문고

망원동에 자리한 이곳은 '서점은 쉼터'라고 생각하는 대표의 생각이 눈에 띄는 곳이다. 서점 곳곳에 큰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편안히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다.

-마포구 월드컵로 125
-336-9480
-오전 10시-밤 10시

## 2-5. 홍익문고

만남의 장소로도 익숙한 이곳은 반세기 넘게 신촌을 지켜온 종합서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돈이 잘 된 서가는 물론 눈에 잘 띄는 곳에 추천 코너를 세분화하여 독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서대문구 연세로2
-392-2020
-www.cafe.naver.com/hongikbook
-오전 9시-밤 9시

## 2-6. 햇빛문고

책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읽고 즐기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대표의 희망대로 동네 사람들이 책을 즐기러 찾는 서점이다. 독서모임뿐만 아니라 종종 동네 어린이들이 서점 견학을 오기도 한다.

-양천구 목동서로 355
-2655-2444
-오전 9시 30분-밤 10시 30분

## 3 사회, 문화과학 서점

### 3-1. 인서점

82년에 문을 연 대학가 첫 사회과학서점이다. 어두웠던 시절엔 학생들의 비밀 장소였으며 이제는 '인문학적 가치가 다시 꽃 필 때까지 그 씨앗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진구 광나루로24길 14
-2201-2250
-오전 9시-밤 10시 30분, 일 휴무

### 3-2. 그날이오면

비판적 지성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은 좋은 책을 통해 시대정신을 나누고자 하는 서점이다.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초청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조금 더 나은 그날이 오기를 꿈꾸는 곳이다.

-관악구 신림로89
-885-8290
-www.gnal.co.kr
-오전 9시-밤 12시

### 3-3. 풀무질

성균관대 앞에서 사화과학서점의 명맥을 튼튼히 잇고 있는 서점이다.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책을 둘러볼 수 있으며 '풀빵'이라 불리는 서점 안의 작은 공간에선 다양한 모임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종로구 성균관로19
-745-8891
-오전 9시-밤 10시,
주말 오전 12시-밤 9시

### 3-4. 길담서원

통인동 시절을 지나 2014년 옥인동에 새로이 둥지를 튼 인문학 전문 서점이다. 이름처럼 현대의 서원이 되고자 자처하는 이곳에선 다채로운 공부모임과 서당식 공부법이 진행 중이다. 단순한 서점이 아닌 인문학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곳엔 배움의 기쁨을

맛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9
-730-9949
-www.cafe.naver.com/gildam
-오전 12시-밤 9시, 일 휴무

### 3-5. 프루스트의 서재

금호동 언덕 위에 위치한 이곳은 인문학, 소규모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련 중고도서 매입 및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점이다. 편하게 읽고 쓰는 작은 공간을 지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와 모임도 열린다.

-성동구 무수막길56
-www.proustbook.com
-오전 10시-밤 9시

### 3-6. 레드북스

5년 전 사회운동단체와 여러 공동체가 모여 만든 서점이다. 자발적 운동 생태계의 배후지를 자처하는 이곳은 이름처럼 한때 불온서적이라 불렸을 빨간 책들이 서점을 메우고 있다. 수익을 내는 서점보단 사회운동단체들의 방앗간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로구 통일로 150-1
-070-4156-4600
-www.redbooks.co.kr
-오전 11시-밤 10시,
-토 오전 12시-밤 8시

## 4 헌책방

### 4-1. 이상한나라의 헌책방

책방 주인이 직접 읽고 선별한 책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럽문학, 철학, 예술, 역사책을 주로 만나볼 수 있다. '마을에 책이 있어야 삶이 있다'는 신념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곳이다.

-은평구 서오릉로18
-070-7698-8903
-www.2sangbook.com
-오후 3시-밤 11시, 화·일 휴무

### 4-2. 공씨책방

신촌 대로변에 초록 간판이 인상적인 서점이다. '공씨'라는 서점 이름의 주인인 공진석

대표가 작고한 이후에는 가족이 이어 운영하고 있으며 책뿐만 아니라 LP, CD 들도 다량 갖추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로51
-336-3058
-오전 10시 30분-밤 9시 30분

### 4-3. 기억속의서가

부자(父子) 헌책방으로도 잘 알려진 대양서점의 2호점으로 고서, 희귀본, 절판된 도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오랜 단골들이 추억을 찾아 오는 곳이다.

-서대문구 통일로 39가길 57
-394-4853
-www.cafe.naver.com/daeyangbook
-오전 11시-저녁 8시

### 4-4. 숨어있는책

광화문 네거리에 서점을 냈어도 지금의 이름으로 지었을 거라는 책방 주인의 말처럼 서가 속 숨어있는 책을 찾는 맛이 쏠쏠한 곳이다. 출판사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책방 주인의 안목이 눈에 띄는 곳으로 인문, 사회, 예술 서적을 눈여겨 볼만 하다.

-마포구 신촌로12길 30
-333-1041
-평일 12시-10시, 일요일 1시-10시

## 5 고서점

### 5-1. 통문관

1934년 관훈동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인사동거리의 터줏대감으로, 서점 자체가 역사인 곳이다. 근대의 고서들과 시, 수필의 초판본들을 만날 수 있어 오랜 시간 애서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종로구 인사동길 55-1
-734-4092
-www.tongmunkwan.co.kr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 일 휴무

## 6 어린이서점

### 6-1. 상상하는삐삐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다시피 남아 있는 전통 어린이 서점으로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책들로 구성된

공간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책과 편안히 놀 수 있는 분위기로 동네의 알찬 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중랑구 중랑천로117
-491-0516
-www.blog.daum.net/kalman99
-오전 10시 30분-저녁 7시, 일 휴무

## 7 그림책서점

### 7-1. 피노키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문을 연 그림책&그래픽노블 전문 서점이다. 국내 그림책은 물론 각국의 원서까지 만나볼 수 있다.

-마포구 성미산로 194-11
-070-4025-9186
-www.blog.naver.com/pinokiobooks
-오후 2시-밤9시

### 7-2. 베로니카 이펙트

오랜 연인인 두 사람이 "한 명은 글을 쓰고 한 명은 그림을 그리니 동화책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그림책&그래픽노블 전문 서점이다. 상수동 골목에 위치한 이곳에선 그림 수업과 일러스트 워크숍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0
-6273-2748
-www.veronicaeffect.com
-오전 11시 30분-저녁 8시

## 8 예술서점

### 8-1. 더북소사이어티

경복궁역 뒤 통의동에 자리한 이곳은 큰 간판이 따로 없다. 작은 입간판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아티스트북, 건축, 디자인 관련 서적 및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와 새로운 창작프로젝트들을 접할 수 있다.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325-5336
-www.thebooksociety.org
-화-금 오후 1시-저녁 8시

### 8-2. 북스테이지

소극장의 메카 혜화에 있는 공연예술전문서점이다. 연극, 사진, 무용 등 예술에 관한 책을 갖췄으며 단순 서점을 넘어 무대와 소통하는 예술 공간을 추구하는 곳이다.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668-0034
-www.hanpac.or.kr
-오후 2시-밤 11시, 월 휴무

### 8-3. 심지

1994년부터 강남에서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 해외잡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심지 굵은 서점이다. 조경, 디자인 관련 서적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어 건축을 하는 이라면 쉬이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강남구 논현로 723 창성빌딩
-512-1788
-www.simjibook.com
-오전 9시 30분-저녁 7시,
토 오전 10시-저녁 6시, 일 휴무

## 9 독립출판물 서점

### 9-1. 유어마인드

산울림 소극장 근처, 예전 기찻길 옆 한적한 건물 5층에 자리하고 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수고로움도 잠시, 아늑한 서점에 들어서면 마치 세상과 동떨어져 책과 나만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다. 독립출판물 판매뿐만 아니라 유어마인드에서 직접 제작하고 출판까지 한 양질의 책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벌써 8회를 맞는 아트북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마포구 와우산로35길 7
-070-8821-8990
-www.your-mind.com
-화-토 오후 2시-밤 9시 30분,
일 오후 2시-밤 9시, 월 휴무

### 9-2. 헬로인디북스

책방피노키오와 나란히 연남동을 지키고 있는 서점이다.

독립출판을 사랑하는 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포구 동교로46길 33
-www.hello-indiebooks.com
-오후 3시-밤 9시, 화 휴무

### 9-3. 스토리지북앤 필름

해방촌 언덕에 있는 독립출판물 서점이다. 필름카메라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사진, 출판 관련 강좌도 열리는 곳이다. 특히 나만의 사진집 만들기 강좌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용산구 신흥로 115-1
-010-2935-9975
-www.storage bookandfilm.com
-오후 1시-저녁 8시

### 9-4. 이곶

국내외 독립출판물, 책방 주인의 개인적인 취향이 묻은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 '곶'은 제주도 말로 숲이라는 뜻으로 이곶에서는 제주도 관련 책들도 만날 수 있다. 간단한 음료와 함께 책을 읽다보면 책의 숲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성동구 광나루로9길 2
-070-4610-3113
-www.igot.co.kr
-화-토 오후 2시-밤 9시, 일 오전 12시-저녁 6시, 월 휴무

### 9-5. 반반북스

독립출판물의 불모지인 노원에 문을 연 작은 서점이다. 반반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면 그냥 하나인 것보다 더 온전해진다고 믿는 책방 주인은 색이 분명한 소규모출판사 책을 중심으로 소규모출판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 동일로 1456
-9150-1696
-www.banbanbook.blog.me
-오후 2시-저녁 8시, 월 휴무

### 9-6. 노말에이

국내외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그래픽디자인스튜디오 131WATT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다. 다양한 주제의 노말에이 워크숍이 매달 열리고 있다.

-중구 장충단로7길 17 2층
-070-4681-5858

-www.normala.kr
-오전 11시- 저녁 8시,
매달 둘째, 넷째 주 월 휴무

### 9-7. 다시서점

'서점이 사라지는 시대에 다시 서점을 하자'는 의미로 서점 이름을 지었다. 시집《시월세집》 발행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2길 34 지하 1층
-www.facebook.com/dasibookshop
-오전 12시-저녁 7시

## 10 해외출판물 서점

### 10-1. 포스트포에틱스

이태원에 자리한 디자인 서점으로 다양한 디자인 서적 및 일러스트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하얀 네모를 연상케하는 흰색 공간 덕에 책의 다채로움이 돋보이는 곳이다.

-용산구 이태원로240
-322-7023
-www.postpoetics.kr
-오후 1시-저녁 8시, 일 휴무

### 10-2. 온고당

30년 넘게 홍대 앞을 지켜온 서점으로 외국서적 및 디자인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요리, 패션, 인테리어 분야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오래된 잡지부터 최신 잡지까지 둘러보다 보면 홍대 앞을 지켜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마포구 와우산로105
-332-9313
-www.ongodang.co.kr
-오전 10시-밤 9시

### 10-3. 매거진랜드

20년간 수입서적업체에서 근무한 책방 주인이 15년째 운영 중인 서점이다. 다양한 해외잡지 및 디자인 서적을 갖추고 있으며 시중에서 찾기 힘든 잡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마포구 잔다리로6길 17
-3142-6460
-www.eyebook.co.kr
-오전 10시 30분-저녁 8시, 일 휴무

### 10-4. 아이디앤북

건축 디자이너 출신의 책방 주인이 디자이너들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서점이다. 디자인의 역사를 다룬 책을 만날 수 있다.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3
-334-8556
-www.idnbook.co.kr
-오전 10시-밤 10시

## 11 만화서점

### 11-1. 한양툰크

홍대 앞 한양툰크는 문을 열고 들어가 책을 따라 구경하다 보면 서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래된 서점답게 이미 절판되어버린 책도 찾아볼 수 있다.

-마포구 홍익로6길 67
-338-5210
-www.toonk.com
-오전 9시 30분-밤 11시

### 11-2. 북새통문고

홍대 앞에서 한양툰크와 함께 만화 서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놀라운 규모에 한 번, 공간을 꽉 채운 만화책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다.

-마포구 홍익로6길 57
-324-0211
-www.booksaetong.co.kr
-오전 9시-밤 10시 30분

## 12 소규모 복합서점

### 12-1. 책방만일

'책을 통해 만일의 세계를 상상합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운 서점이다. 작은 출판사의 책은 눈에 띄는 곳에, 무거운 주제는 어렵지 않게 시작 할 수 있도록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엮어 진열해 놓는다. 망원시장의 먹거리와 함께하는 만일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네와 상생하고 있다.

-마포구 희우정로16길 46
-070-4143-7928
-www.facebook.com/manilbooks
-오후 1시-저녁 8시, 일 휴무

## 12-2. 200/20

전자상가가 즐비한 세운상가에 둥지를 튼 서점으로 매해 다른 주제를 선정해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 올해의 주제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와 관련된 철학, 문학 등 인문학 책을 주로 만나볼 수 있다.

-중구 청계천로160 청계상가 가열 311호
-www.200x20.org
-오후 2시-저녁 8시, 일 휴무

## 12-3. 오디너리북숍

조용한 성북동에 자리한 서점으로 독립출판물 및 소규모출판물을 갖춘 곳이다.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의 성북동 가게들과 함께 플리마켓 등을 열어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성북구 성북로6가길 1
-070-8288-8715
-www.o_bookshop.blog.me
-오전 11시-저녁 8시, 일 휴무

## 12-4. 책방요소

작은 요소들이 모여 큰 요소가 되듯, 또 다른 요소의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서점이다.

-중구 청파로 437-1
-070-4144-7866
-www.facebook.com/yosobyyosoes
-오후 2시-저녁 8시, 일 휴무

## 12-5. 책방오후다섯시

회기에 먼저 자리를 잡은 오랜 친구의 스튜디오에 서점을 내어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친구네 집에 놀러간 듯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으며 한쪽에 있는 회색 벽은 작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동대문구 회기로26길 14 3층
-070-7565-5216
-www.5pmbooks.com
-금 오후 2시-저녁 7시,
주말 오후 1시-저녁 7시,
평일 홈페이지 참고

## 13 퀴어서점

### 13-1. 햇빛서점

게이인 서점 주인이 '자신이 가고 싶어 만든'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를 위한 서점이다. 국내에서 성소수자가 만들었거나 성소수자커뮤니티를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창작물을 비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4월까지는 주말에만 운영한다고 한다.

-용산구 보광동 우사단로10길 84
-www.facebook.com/sunnybooks.kr
-주말 오후 2시-저녁 8시

## 14 전시가 있는 서점

### 14-1. 책방이음

수익을 내는 서점이 아닌 '공익서점'을 지향하며 좋은 책을 통해 서로 손 내밀고 잡아주는 세상을 꿈꾸는 곳이다. 우리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뿐만 아니라 안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연일 전시가 끊이질 않는다.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766-9992
-www.eumartbook.com
-화-토 오후 1시-밤10시, 일 오후 1시-저녁 7시, 월 휴무

### 14-2. 땡스북스

홍대 앞이라는 동네 특성을 고려해서 선별한 책들을 갖춘 친근한 동네서점이다. 한 달에 한 번 출판사와 함께 주제가 있는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있다. 홍대 앞 사람들에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포구 잔다리로28
-325-0321
-www.thanksbooks.com
-오전 12시-밤 9시 30분

## 15 술이 있는 서점

### 15-1. 북바이북

'책맥'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서점답게 이곳에선 커피는 물론 맥주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다. 본점과 소설점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다달이 꽉 차 있는 강좌와 책꼬리 문화, 다독왕 시상 등을 통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32
-308-0831
-www.bookbybook.co.kr
-평일 오전 11시-밤 11시,
토 오전 12시-저녁 7시, 일 휴무

### 15-2. 퇴근길책한잔

이대 앞 술과 책이 있는 작은 책방으로 독립출판물과 소규모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이다. 집에 바로 가기엔 뭔가 아쉬운 날, 책과 함께 한잔하기 좋은 곳이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영화 상영이 있고 때때로 책방 콘서트가 열린다.

-마포구 숭문길206
-www.blog.naver.com/booknpub
-오후 3시-밤 9시, 화 휴무

## 16 여행서점

### 16-1. 일단멈춤

여행을 주제로 독립출판물과 일반단행본을 판매하는 서점이다. 책뿐만 아니라 책방 주인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모은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포구 숭문16가길 9
-2686-2906
-www.blog.naver.com/stopfornow
-오전 12시-저녁 8시, 일 휴무

### 16-2. 짐프리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홍대입구역과 연결된 건물에서 여행서를 판매하는 곳이다. 단순한 서점을 넘어 zimfree라는 이름대로 짐 보관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행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 양화로156 LG팰리스빌딩
지하 2층 222호
-322-1816
-www.zimfree.com
-오전 9시-밤 11시

1-6 **동양서림** 추천도서

C( )
T( )

## 상록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한 농촌계몽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당선
된 소설이다.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지식인들의 모습, 당시 농촌의
피폐한 사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동양서림의 오래된
서점 창고에서 발견한
1971년판 〈상록수〉.

심훈
철판

3-3 **풀무질** 추천도서

C( )
T( )

## 깨어나라!
## 협동조합

20년 동안 국내 협동조합의
현장을 누빈 김기섭 박사가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책이다.

들녘
김기섭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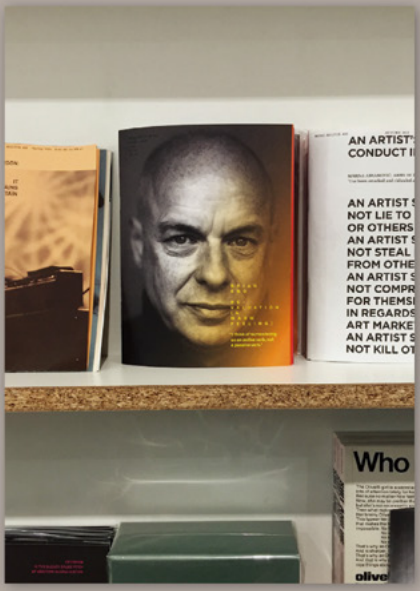
7-1 피노키오 추천도서

C( )
T( )

## Dans la lune
## (In the moon)

달은 늘 변함없이 머있는 듯 하지만
쉴 없이 변하고 있다. 이 책은 11월의
달이 차올랐다 자는 모습을 60장에
걸쳐 순서대로 그린 책이다.

Editions du livre
Fanette mellier
33,000원




10-1 포스트포에틱스 추천도서

C( )
T( )

## Mono.Kultur #34:
## Brian Eno

미술, 디자인, 문학, 음악, 영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한 사람을 선정하여 만드는 잡지
모노.쿠투(Mono.Kultur)의 서른네
번째 이슈는 대중 음악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를 다루고 있다.
페이지마다 조금씩 비율의 색이 바뀌는
책의 만들새가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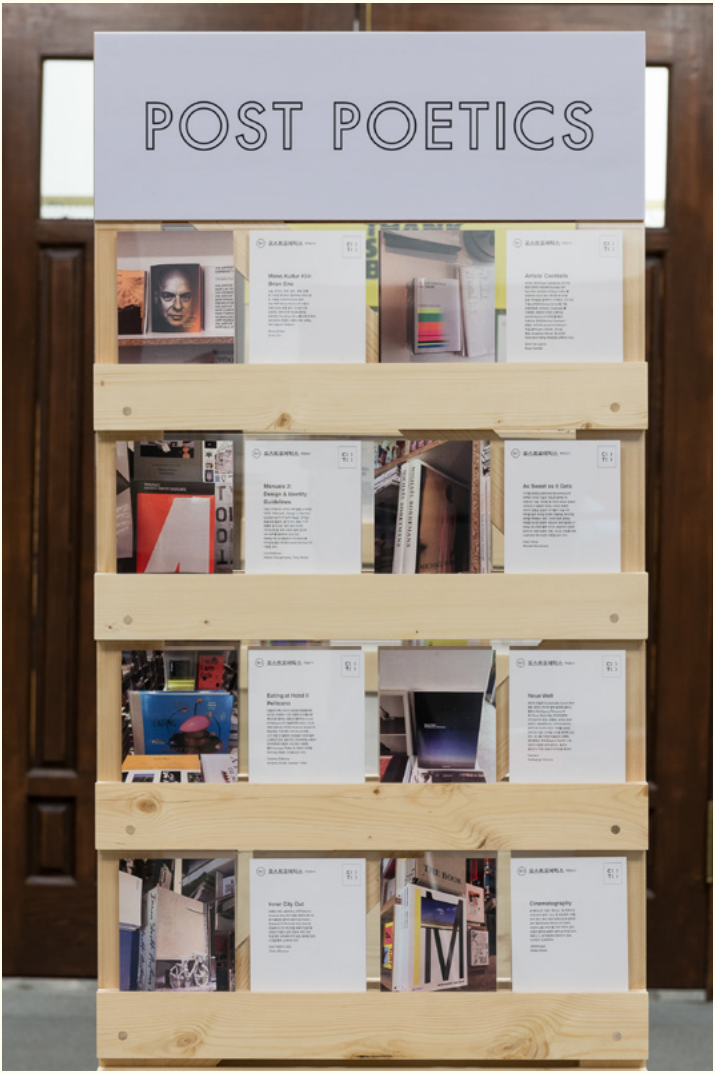
Mono.Kultur
Brian Eno

풀무질
THE BOOK SOCIETY
TOONK

동양서림
SINCE 1953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책방 피노키오
Dans la lune
(In the moon)
THE NEW GHOST
O REGRESSO
Smoke
ARRIVAL

SELECTED BOOKSHOP
YOUR MIND


POST POETICS

한양 TOONK
SLAM DUNK
설 국 열 차
Ho!

만일
동네책방

THANK
S
BOOKS
GIRLS ON FILM
BOYS ON FILM
프란츠
카프카
꿈
642

BOOK
BY
BOOK
고래
장기
보수
시대

풀무질
THE BOOK SOCIETY
TOONK
한강문고
동양서림

# 동양서림 추천도서

## 상록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한 농촌계몽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당선
된 소설이다.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지식인들의 모습, 당시 농촌의
피폐한 사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동양서림의 오래된
서점 창고에서 발견한
1971년판《상록수》.

**심훈**
**절판**

## 장욱진 판화집

아동화 같고 동화책의 그림 같은
표현의 세련성과 조형적 구성의
치밀성으로 독특한 화풍을
남긴 고 장욱진 선생의 판화집.

동양서림은 1954년 장욱진
선생의 부인 이순경 여사가
혜화동 로터리에 문을 연 이후
61년째 그 자리에 있다.

**열화당**
**장욱진**
**절판**

## 한국대표시인 101인선집

## 조병화

동양서림의 단골이었던 고
조병화 선생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쉬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독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 왔다.

**문학사상사**
**조병화**
**14,000원**

## 조훈현 실전 최신 정석

바둑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조훈현 기사의
바둑이론서. 90년대에는
바둑책이 불티나게 팔렸었다.

**바둑서당**
**조훈현**
**절판**

한국대표시인 101인선집
조병화
문학사상사

실전최신정석 3
조훈현

이방인

## 이방인

"〈이방인〉은 엄격한 질서를 갖춘 고전 작품으로, 부조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부조리에맞서 쓰인 책이다." -장폴 사르트르
"카뮈는 신화가 되었다. 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
-롤랑 바르트

**민음사**
**알베르 카뮈**
**김화영 옮김**
**9,000원**

## 바쇼 하이쿠 선집

한 줄도 너무 길다는 언어의 정수 하이쿠. 하이쿠의 성인으로 불리는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작품 중 350편을 엄선하여 엮은 책이다.

**열림원**
**마쓰오 바쇼**
**류시화 옮김**
**15,000원**

## 채링크로스 84번지

영국의 헌책방 거리로 유명한 채링크로스가의 한 서점 직원과 뉴욕의 한 가난한 여류작가가 20년 동안 책을 매개로 나눈 편지들을 담은 책. 1970년에 출간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궁리**
**헬렌 한프**
**이민아 옮김**
**8,000원**

##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한다. 지금 경험하는 흥분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꿈꾼다. 이탈리아어로 읽는 건 내게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P.43
인도계 미국 작가 줌파 라히리가 모국어 영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쓴 에세이다. 언어에 대한 치열한 탐구와 사랑이 느껴진다.

**마음산책**
**줌파 라히리**
**이승수 옮김**
**12,000원**

# 한강문고 추천도서

## 노란집

《노란집》은 고 박완서의 82회 생일을 기리는 때에 출간되었다. 제목처럼 바로 이 '노란집'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연들을 들려주어왔다. 짤막한 소설들 한 편 한 편 속에 생을 다 옮겨다놓은 듯한 이야기들은 마치 작가가 옆에서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다. 여기에 더해진 글 사이사이의 일러스트들은 일상의 피로를 잔잔하게 어루만지면서 삶의 여유와 따스함을 전달해준다.

**열림원**
**박완서**
**13,000원**

## 소년이 온다

섬세한 감수성과 치밀한 문장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온 작가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창비**
**한강**
**12,000원**

##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지친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도원 작가의 에세이집. 이 책에는 차분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의 메시지 외에도 대한항공 사진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조화롭게 구성된 글과 사진은 언어만으로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이 절실한 독자들에게 충분한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홍익출판사/고도원**
**대한항공 사진/13,800원**

사는 동안 꽃처럼

소설가의 일
월든
Walden
가장 많이 팔린 최고 번역의 《월든》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The Place of PREJUDICE
타인의 고통
아무도

## 사는 동안 꽃처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판화가 이철수의 편지를 모아 엮은 일곱 번째 책. 특히 흙을 일구고 논밭에 곡식과 푸성귀를 갈아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자랑하는 엽서가 많다. 한편 좋은 이웃과 친구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고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놓여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 혼자 설 힘이 중요하기에 농사 이야기와 틈틈이 마음 살피기도 이야기한다.

**삼인**
**이철수**
**12,000원**

##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경제 형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책. 주류 경제를 뒤집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모아놓은 이 책은 대안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녘**
**J.K.깁슨-그레이엄, 제니 캐머런, 스티븐 힐리 공저**
**황성원 옮김**
**16,000원**

## 월든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대표작. 월든 호숫가의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담은 책이다. 국내에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강승영 씨 번역의《월든》이다

**은행나무**
**헨리 데이빗 소로우**
**강승영 옮김**
**13,000원**

## 타인의 고통

수전 손택의 관찰에 따르면,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사방팔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여 있다. 손택은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본 '재현된' 현실과 '실제' 현실의 참담함 사이에 얼마나 크나큰 거리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어판은 영어판에는 없는 도판 48장을 수록했으며, 책을 펴내기 전 손택이 발표한 기고문 4편을 실었다.

**이후**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16,500원**

### 수상한 북클럽

독산고 사회과 교사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서를 꾸준히 써온 저자는 네 명의 아이들과 열두 달 동안 열세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각각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담아냈다. 교양소설에 걸맞게 '주인장의 편지'라는 별도의 꼭지를 통해 그 달에 읽은 책에 대한 충실한 보충수업을 곁들이고 있어, 청소년 독자에게 더욱 유익하고 풍성한 내용을 선사한다.

**문학동네**
**박현희**
**12,000원**

## 풀무질 추천도서

### 월든

이 책은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시도한 산물이다. 대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 인간의 독립 선언문이기도 하다.

**은행나무**
**헨리 데이빗 소로우**
**강승영 옮김**
**13,000원**

## 생각한다는 것

삶의 본질과 행복, 자유, 우정 등 철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딱딱한 이론으로 소개하는 대신에 직접 겪었던 일들, 우리 사회와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 속 유명한 철학자들의 일화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들려준다.

**너머학교**
**고병권**
**10,000원**

## 풀무질, 세상을 벼리다

저자 은종복은 자신의 모교 앞에 책방을 꾸리고 그곳 '풀무질'에서 책만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 새로운 삶을 퍼트리는 전도사로 살고 있다. 2003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책방 손님들에게 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고, 아이 형근이를 대안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겪은 이야기, 책방 일을 도와주시는 아버지와 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다. 그렇게 써 오기 시작한 쪽지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후**
**은종복**
**12,000원**

## 우리들의 하느님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1주기를 맞아 발간된《우리들의 하느님》개정증보판으로, 저자의 생애와 생활의 단상을 서술한 산문들을 엮었다.

**녹색평론사**
**권정생**
**14,000원**

## 깨어나라!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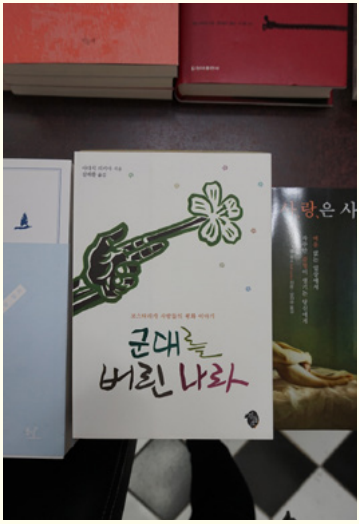
20년 동안 국내 협동조합의 현장을 누빈 김기섭 박사가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책이다.

**들녘**
**김기섭**
**13,000원**

풀뿌리,
세상을 버리다

아리랑

단재 신채호 평전
대화


군대를 버린 나라

## 대화

"마지막으로 덧붙일 청이 있다. 이제는 거의 지나가버린 그 시대를 인간적 고통과 분노, 상처투성이의 온몸으로 부딪쳐 살아온 기성세대나, 앞 세대들이 심고 가꾼 열매를 권리처럼 여기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맛보고 있는 지금의 행복한 세대의 독자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 직면했거나 처했다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가치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그럼으로써 이 자서전의 당사자와 대담자가 책 속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자기비판적 대화의 기회로 삼기를.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나와의 비판적 대화도 가질 수 있기를."
-작가의 말 中

**한길사**
**리영희**
**22,000원**

## 아리랑

미국인 여기자 님 웨일즈가 1937년에 기록한 조선인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불꽃같은 삶을 담은 책이다. 독립혁명가 김산의 고뇌와 좌절, 사랑과 열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동녘**
**님 웨일즈, 김산**
**송영인 옮김**
**15,000원**

## 군대를 버린 나라

행복지수 세계 1위,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중남미의 우등생, 인권 공헌 국가, 마치스모(남성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중남미에 위치한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를 설명하는 수사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코스타리카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은 군대를 버린 나라라는 데 있다. 1948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중남미 화약고에서 코스타리카는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군대 폐지'를 선언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한 코스타리카, 군대를 버려 평화를 얻은 이 작은 나라의 평화 문화를 탐색했다.

**검둥소**
**아다치 리키야**
**설배환 옮김**
**13,000원**

# 이상한나라의 헌책방 추천도서

## ALICE IN WONDERLAND

앨리스 이야기는 1865년에 맥밀란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후 수많은 변주를 거쳐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읽히는 책이 됐다. 이 책은 RAPHAEL, TUCK&SONS 출판사에서 1933년에 펴낸 초판으로 본문 중간에 아름다운 삽화가 그려진 팝업이 들어 있는 게 특징이다.

**RAPHAEL, TUCK&SONS**
**Lewis Carroll**

## LE MONDE DE JEAN COCTEAU

천재 예술가 장 콕토의 회화와 스케치를 모아 일본에서 전시했을 때 펴낸 도록이다. 전시는 1995년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렸고 도록에는 총 219점의 작품을 수록했다.

**Bunkamura**

## 비트겐슈타인의 조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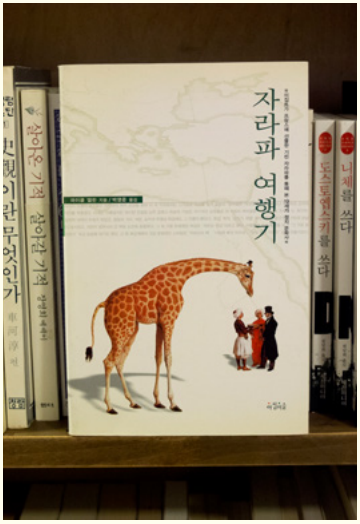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국민상을 받은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중편소설로 1997년 현암사에서 펴낸 초판이다. 처음 읽는 독자는 베른하르트 특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체에 다소 당황할 수 있으니 읽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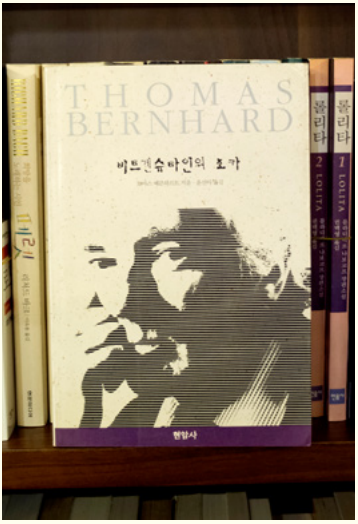
**현암사**
**토마스 베른하르트**
**윤선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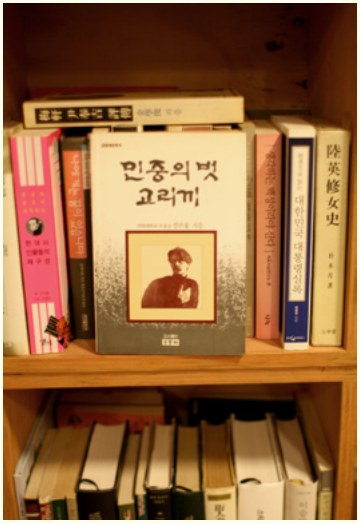
## 자라파 여행기

19세기 초 이집트 정부가 프랑스에 기린을 한마리 선물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ALICE IN WONDERLAND
LEWIS CARROLL
with "COME TO LIFE" Panorama


자라파 여행기


THOMAS BERNHARD
베르겐슈타인의 초가
롤리타
LOLITA
현암사


민중의 벗 고리끼
陸英修女史

처음으로 대하는 이 신기한 동물을 '자라파'라고 불렀고 이는 나중에 'Giraffe'라는 이름이 된다. 별다른 이동 수단도 없었던 그때 기린은 6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여행했을까? 이 책은 기린의 장거리 여행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19세기 유럽의 정치와 문화사라는 소재를 흥미롭게 정리한다.

**아침이슬**
**마이클 앨린**
**박영준 옮김**

## 민중의 벗 고리끼

러시아 작가 고리끼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고리끼가 그런 작품을 쓴 이유와 당시 러시아의 시대상까지 알려는 노력은 많지 않다. 이 책은 1989년에 공동체 출판사에서 펴낸 초판이며 고리끼의 작품과 사상을 자세히 설명한다. 연변대학교 부총장인 정판룡이 쓴 책이고 '남한판'에 붙이는 서문이 들어 있다.

**공동체/정판룡/절판**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싸우는 평화주의자'라는 말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어른이 있을까? 함석헌 선생의 글 모음이다. 초판은 1959년에 '새 시대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은 여기에 서문을 덧붙인 1979년 5판이다.

**생각사**
**함석헌**
**절판**

## 1215 마그나카르타의 해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해인 1215년. 그 해 6월 15일은 영국에서 '자유헌장'이 탄생한 날이다. 자유헌장의 조항들은 당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전제왕권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막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 책은 당시 영국의 정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자유헌장이 오늘날 보여주는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생각의나무**
**존 길링엄**
**황정하 옮김**
**절판**

### 서양철학사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며 뿌리이다. 많은 학자들이 서양 철학의 흐름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뒤따른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버틀런드 러셀의 책이지만 어쩐 일인지 헌책방에서는 러셀보다 램프레히트의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램프레히트 철학사 책의 특징은 평이한 서술과 함께 철학의 원전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을유문화사**
**S.P. 램프레히트**
**김태길, 윤명로 옮김**
**15,000원**

## 피노키오 추천도서

### 어느 신비한 숲 속, 유쾌한 목욕탕

이 책은 숲 속에 사는 다섯 동물 친구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하지만 텍스트 없이 그림만으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즐겁고 흐뭇한 어느 목욕탕에서의 하루를 상상할 수 있다.

**KIO**
**Yana Lee**

### 돼지 이야기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구제역 사태'로 돼지 약 332만 마리의 목숨들은 대부분 산 채로 구덩이 속에 파묻혔다. 그것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비극이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목숨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니까. 이 책은 도대체 그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으며, 짐승들은 무엇을 느끼며 죽어 갔는지를 이야기 한다.

**이야기꽃**
**유리**
**15,000원**

어느 신비한 숲 속, 유괴한 목욕탕

The
ARRIVAL
SHAUN TAN

돼지 이야기

THE NEW GHOST
NOBROW

## DANS LA LUNE
## (IN THE MOON)

달은 늘 변함없이 떠있는 듯 하지만 쉼 없이 변하고 있다. 이 책은 11월의 달이 차올랐다 지는 모습을 60장에 걸쳐 순서대로 그린 책이다.

Editions du livre
Fanette Mellier

## LITTLE TREE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몇 번의 사계절을 보내고 사라지기까지 나무의 일생을 담았다. 매 페이지마다 종이의 질감이 달라 눈으로 뿐만 아니라 손으로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Katsumi Komagata
Petit Arbre

## O REGRESSO

우리말로 귀향이라는 제목의 글 없는 그림책이다. 정형화된 고향의 이미지 대신 각자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고향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추억이 있는 고향과 사랑을 베푸시던 할머니가 그리워지는 책이다.

Bruaa
Nataloa Chernysheva

## SMOKE

연기처럼 사라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폴란드 태생인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OQO Editora
Joanna Concejo

## ARRIVAL

무엇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남겨둔 채, 가족도 친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나라로 쫓기듯 떠나게 만든 걸까? 이 책은 모든 이민자와 망명객, 난민들의 이야기이며 또한 그들 모두에게 바치는 작품이다.

사계절/Shaun Tan
22,000원

THE NEW GHOST

초짜 유령이 이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이자
돌아가신 부모님께 바치는
이야기책이다.

Nobrow
Robert Hunter

# 더북소사이어티 추천도서

STATEMENT AND
COUNTER-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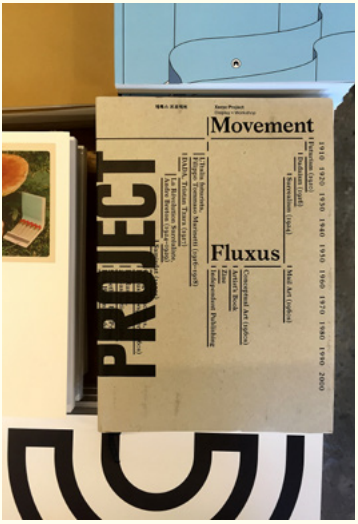
네덜란드 출신의 그래픽 디자인 그룹인 익스페리멘탈 젯셋의 첫 번째 책으로 20년간의 활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모노그래프 형식을 따르기보다 매우 느슨하고 개인적인 아카이브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린다 반 되르센, 마크 오웬스, 이안 스베노니우스의 글과 함께 젯셋이 고른 사진 챕터 2개도 담고 있다. 이 사진 챕터는 장소 특정적인 작품 설치와 인쇄물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젯셋이 전에 썼던 텍스트(인터뷰나 강연, 기사 등) 조각의 앤솔로지가 사전처럼 뒤에 붙어 있는데 존 수에다가 선택, 편집하고 구조를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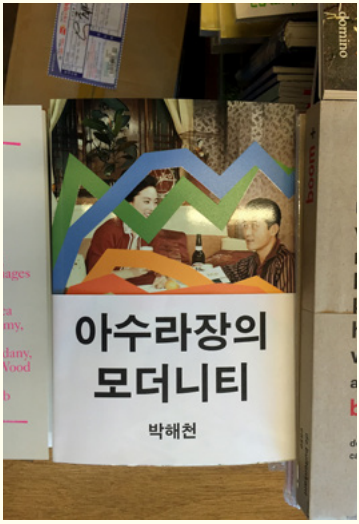
Roma Publications
Experimental Jetset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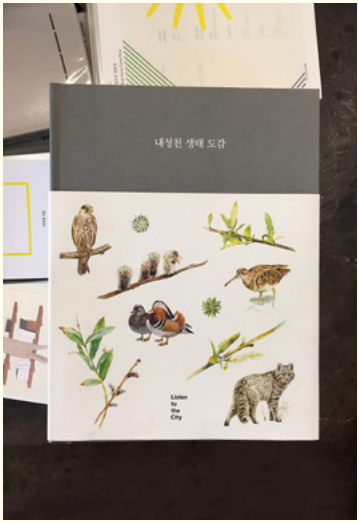
이 책은 2015년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김영나의 네 번째 개인전이자 동명의 전시를 위해 출판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작업의 파편들을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샘플북의 형식에 담았다. 일반적인 전시 도록과 달리, 이 책은 전시 전에 출판되어 전시의 구조를 사전 제안하며 전시 공간에서 구성될 가상의 무대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Roma Publications/김영나
40,000원


Movement
Fluxus
PROJECT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박해천

schrader
schachtner
haller
neller
v d goor
ricci
beeren
koomen
hennequin
wakabayashi
at
boom
de buitenkant
case


내성천 생태 도감

## 제록스 프로젝트

제록스 프로젝트는 예술 활동(특히 백남준 아트센터의 특정한 맥락)에서 출판 인쇄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지금 어떤 맥락을 형성하며 지속되거나 소멸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1] 인쇄 테크놀로지 역사를 개괄한 연표 작업, [2] 특정적 사건과 예술 운동,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그린 다이어그램, [3] 관련 도서 60여종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4] 11명의 참여자와 함께 4일 동안 진행한 워크숍이 그것이다.

**백남준 아트센터**
**임경용, 박상애 외 지음**
**10,000원**

## IBO

1991년부터 이르마 붐은 항상 이보(이르마 붐 오피스)에서 한 두 명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일을 해왔다. 그들은 보통 젊고 다른 국적을 가진 디자이너들이다. 이 책은 2013년부터 이보에서 일을 해온 아키코 와카바와시의 일본 전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는데 이보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10명의 디자이너들의 이보 디자인에 대한 개인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그들의 글과 디자인, 이미지와 함께 이르마 붐의 모습, 그녀의 작품과 디자인에 대한 철학도 함께 다루는 책이다.

**Irma Boom**
**60,000원**

##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콘크리트 유토피아》《아파트 게임》에 이은 박해천의 '콘유' 삼부작 완결편. 1970~80년대 고도성장기 아파트 단지 개발과 그에 따른 중산층 문화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전작과 달리,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전쟁의 기계들이 던져준 모더니티의 충격부터 새로운 감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 테크놀로지까지, 우리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은 인공물을

함께 다룬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축을 따라 전개된다. 한쪽에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경험 형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공물들이 포진해 있다면, 또 한쪽에는 생존을 위해 그에 맞서거나 그들을 수용, 포섭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겪어온 이들의 생애사가 존재한다.
특히 저자는 특정한 주거 모델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선 이 인공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의 논리를 갱신하고 욕망의 구조를 조정하고 일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집단을 주목했는데, 그것은 1960년대의 서북계-이층양옥-중상류층, 1980년대의 강남-아파트-중산층, 1990년대의 신도시-이마트-중산층이다.
이전의 두 책에서 '강남-아파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일종의 카메오처럼 등장시킨 반면, 다른 두 유형에 대해서는 「'서북-모던'과 이층양옥 연속체」와 「마지막 코리안 스탠더드」, 이 두 장을 할애해 살펴보았다.

**워크룸**
**박해천**
**15,000원**

## 내성천 생태 도감

낙동강 지류중 물이 가장 맑고 모래가 풍부하여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상북도 봉화, 영주, 예천을 흐르는 내성천은 현재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지율스님과 함께 강을 답사하고 기록한 예술가 박은선은 그동안 거의 매주 내성천을 방문하여 관찰한 내용을 생태 도감이라는 형식으로 펴냈다.
내성천은 모래는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왕버들' 군락이 가장 발달한 하천이기도 하다. 얕은 모래강과 잘 발달한 버드나무 군락 특성 때문에 무려 25종 이상의 희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소중한 곳이다. 작가는 이 강이 자기의

모습과 색을 잃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예술가로써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 이 책은 잘못된 선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지고 있는 내성천의 동물과 식물들을 미시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
저자 박은선은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색을 수채화로 담아내고 싶었다고 한다.
"이 책을 계기로 십 년 후에도 백 년 후에도 이 책의 주인공인 강의 모래와 새와 버드나무들이 우리 강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버드나무의 촉촉한 연둣빛 이파리와 살 색과 같은 모래색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안토니오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제 색을 찾을 때 세상은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내성천이 자신의 색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리슨투더시티**
**박은선**
**20,000원**

## IDEA DOCUMENT ON THE SHOULDERS OF GIANTS

2000년 이후 디자인 잡지 〈아이디어〉에 수록되었던 로마자 서체 디자인 관련 특집 기사 20개를 약 350페이지에 달하는 볼륨으로 새롭게 만든 책이다. 로마자 서체 디자인의 세계를 각 프로젝트의 상세한 해설과 타입 디자이너 인터뷰 및 연구자에 의한 논고를 통해 소개한다.
우리가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익숙한 로마자 글꼴은 15세기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설립한 이래 전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수년 동안 금속 활자가 주류였다가 로마자 활자의 세계에 큰 기술 혁신이 찾아온 것은 1980년대 Macintosh 도래와 DTP 환경의 보급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로마자 서체는 폭발적인 기세로 늘어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전통적인 서체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만의 가능성을 추구한 실험적인 서체가 중심이었지만, 역사 연구의 진전과 컴퓨터의 처리 능력 향상,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최근 점점 더 정교한 서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지금 디자이너는 물론 일상적인 글꼴에 접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로마자 서체는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idea magazine**

## THE KOOH 6호

#1. 이번 6호는 덕후의 습성 '배회'를 주제로 한 서울 미스테리 가이드북이다.
#2. 이번 호는 만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그래 봤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지만)의 기대를 받았다. 책을 구매해서 귀신을 찾으러 가겠다느니, 흉가를 알고 있다느니 등등. 만약 당신도 진짜 미스터리한 장소를 생각하고 이 책을 구매한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각 동네에 있는 허술하고 조금 이상한 장소를 엮은 가이드북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장소들 말이다. 당신이 사는 동네, 혹은 당신의 방도 미스테리한 곳이 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느끼기에 따라서.
#3. 6호 내지 디자인을 보고 촌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다. 뭔가 트렌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느꼈다면 덕집장의 의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정확히 83~87년도 책들을 참고해서 디자인했으니까.
#4. 혼자놀기, 집착, 은폐 엄폐, 공상, 중이병을 거쳐 드디어 배회까지 왔다. 이렇게 더쿠의 습성 6개를 모았다면 당신은 빼박할 수 없이 덕후다. 이미 여섯 권을 모아 실실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혹시 모르지 한 권만 더 모으면 드래곤볼처럼 용이라도 불러낼 수 있을지.

**THE KOOH/물고기 머리**
**6,500원**

# 유어마인드 추천도서

## 눈 먼 글쓰기

AC Publishing에서 발간한 기계비평가 이영준의 글을 모은《눈 먼 글쓰기》3종 중 한 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위정자들이 배워야 할 건축학개론, 서울시에서 없애서는 안 되는 것들, 한국문화의 정수, 학식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이미지 비평가의) 매우 편파적인 광주비엔날레 구경기: 통째로 노이즈가 되어버린 비엔날레, KRAFTWERK라고 쓰고 '인간'이라고 읽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가?, 낭비의 기술, 갤럭시 폰 판결문, 짝퉁 테크놀로지 입니다.

98페이지
6000원

## 현실탐구단 보고서 04

현실탐구단은 살아가며 부딪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탐구하는 글쓰기 소모임입니다. 이 책은 소모임의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 4호 입니다.

72페이지
7,000원

## 퀴어인문잡지 삐라 2호

### 죽음

죽음은 삶과 가깝습니다. 누구라도 단숨에 멀고 가까운 이의 죽음을 하나 이상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죽음에서부터 관념적인 죽음까지, 나를 이루던 부분의 죽음에서부터 나를 이루던 타인의 죽음까지. 죽음은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단순히 '나쁘다', '좋다'라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이른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공통된 것은 어떤 범주의 죽음이든

간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것의 여정이
시작한다는 점뿐입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떠나와,
사막에서 소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극점 사이에는 무수한
사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퀴어인문잡지 삐라》 2호에서는
삶을 적나라하게 되비치는
죽음이라는 소멸과 창조 사이의
진동, 그 경계와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42페이지
20,000원

PBT(포토샵 브러시 텍스트)

"《포토샵 브러시 텍스트》는
2013년 부터 1년간 인터넷에서
공유된 포토샵용 디지털
브러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포토샵이란 수백 명의 수학자와
그래픽 디자이너, 개발자가
함께 모여 만들어 낸, 지난
세기말 처음 선보인 이래로
창작자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이미지 편집도구입니다.
이 책은 포토샵 프로그램 내부의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브러시 도구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 이 책을 구입해
볼 정도의 독자라면 디지털
저작도구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숙지한 상태일 것입니다.
혹은 그와는 정반대 편에서,
책을 읽고 나서도 도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요. 다소 혼잡한
구성이라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 이 책은 너무 일반적이고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히 건너뛰기도 하며, 낯선
단어가 난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소한 표현과
불친절해 보이는 태도가 책의
이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보다는 볼 때마다 흥미를
자아내는 낯선 풍경처럼

눈 먼 글쓰기

domino

이자혜
Vík
Skaftafe
Höfn

m

보이기를 바랍니다."
-서문 중에서

244페이지
25,000원

## 애플시나몬의 야채소동

겸디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자혜의 첫 번째 그림책. 각각 고유한 특성들이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능한 작가는 이 책에서도 이피와 시미, 춘캣, 믹시팝, 베건 등의 캐릭터들을 등장시킨다. 어텀틴츠 마을에 갑자기 불어닥친 야채 열풍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이피는 베건의 음모에 휘말리는데… 작가가 공들여 그린 70여 장의 그림과 글로 이루어진 책.

142페이지
20,000원

## 도미노 DOMINO 7호

DOMINO 7호는 2015년 9월에 발행됐다. 7호에는 편집동인(김형재, 노정태, 박세진, 배민기, 정세현, 함영준) 외에 김경태, 김괜저, 김용언, 김효진, 남화연, 미원, 윤원화, 윤향로, 이진, 전현우, 제이슨 박, 초타원형 출판, blue suede shoes가 참여했다.

112페이지
15,000원

## 서사적 사물들: 일상도구로 전환된 1+2차 세계대전의 전쟁도구들

크라우드 펀딩으로 출판된 이 책은 독일 작가 토마스 홈바흐Thomas Hombach가 5년 이상 수집한 사물들: 일상도구로 전환된 1+2차 세계대전의 전쟁도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빗발치며 사람과 건물을 파괴했던 대공포탄은 재건을 위한 담장을 쌓기 위해 고요하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미장이용 균형추가 된다(표지사진 참조). 포탄 신관에 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데 쓰였던 신관통이 다림질용 물뿌리개가 되기도 하고, 폭음과 화염을 유발하던

각종 전쟁도구들이 고요하게
빛나는 촛대나 조명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1+2차 세계대전
이후 궁핍과 폐허에서 생성된
사물들은 현재의 모습을 통해
과거를 환기시키고, 그 자체로도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예전에 지녔던 차가움, 죽음,
파괴, 시끄러움 등은 따뜻함,
생명, 재건, 성장, 고요함의
성질로 바뀌었고, 이 다른
성질들은 서로 대립하며 의미를
재배치한다. 그리고 변용된
모습을 통해 역사적 순환의
아이러니한 단면까지도 증언해
준다.

160페이지
30,000원

## 마생 MASSIN

1964년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 아트디렉터인 마생은
외젠 이오네스코의 희곡
'대머리 여가수'를 책으로
재해석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간된《대머리 여가수》가
그 주인공이었다. 배우의
목소리를 글자의 다양한 형태와
실험적인 레이아웃으로 번안한
마생의《대머리 여가수》는
당시 인접국가 스위스에서
파생되어 나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국제주의
타이포그래피와는 확연하게
다른 정신의 타이포그래피
산물이었다. 이후, 마생은
'표현적 타이포그래피typographie
expressive'란 주제에 천착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1970년
출간된《글자와 이미지Le lettre
et l'image》, '띠뽀그라피
엑스쁘레씨브'란 이름으로
발행되는 소책자 기획과
디자인이 그중 일부이다.
마생은 2004년 '띠뽀그라피
엑스쁘레씨브'를 시작하면서
그 첫 책으로《목소리에서
타이포그래피까지De la voix
humaine à la typographie》를
집필해서 출간했다.

이 책은 마생이 1964년 이후 '표현적 타이포그래피'란 이름으로 제작하고 디자인한 책들을 모아 설명한 것으로, 마생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마생 연구서이다. 사월의눈 《마생》에는 마생의 허락을 얻어 수정보완한《목소리에서 타이포그래피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2004년 버전의 개정판인 셈이다. 총 26편의 마생 작업이 이 글에 소개된다.

**사월의눈**
**사진. 올리비에 르그랑**
**글. 마생**
**기고. 이화열**
**불한 번역. 박진영**
**한영 번역. 조희빈**
**192페이지**
**26,000원**

# 포스트포에틱스 추천도서

## MANUALS 2: DESIGN & IDENTITY GUIDELINES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매뉴얼을 소개하는 시리즈 〈Manuals: Design & Identity Guidelines〉의 두 번째 책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벨 캐나다, IBM, 가구 브랜드 놀(Knoll) 등의 당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 사양과 함께 표지와 내지 모두를 촬영하여 싣고 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한 랜스 와이만Lance Wyman이 서문을 썼다.

**Unit Editions**
**Adrian Shaughnessy, Tony Brook**

## MONO.KULTUR #34: BRIAN ENO

미술, 디자인, 문학, 음악, 영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한 사람을 선정하여 만드는 잡지 모노.쿠투Mono.Kultur의 서른네 번째 이슈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를 다루고 있다. 페이지마다 조금씩 바탕의 색이 바뀌는 책의 만듦새가 독특하다.

Mono.Kultur
Brian Eno

## EATING AT HOTEL IL PELLICANO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포르토 에르콜레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꼽히는 호텔 일 펠리카노Hotel Il Pellicano의 미슐랭Michelin 2스타 셰프 안토니오 구이다Antonio Guida의 독창적인 11개 메뉴 5개 코스에 대해 그가 직접 쓴 설명과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요리책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다듬은 사진 대신 유르겐 텔러Juergen Teller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담한 사진을 싣고 있다.

Violette Editions
Antonio Guida, Juergen Teller

## INNER CITY OUT

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tin-Gropius-Bau에서 열린 동명의 전시와 함께 출판된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책《Inner City Out》은 독일에서의 첫 개인전을 위해 작업한 총 28점의 작품의 설치 전경과 제작 과정 등을 모두 4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WALTHER KÖNIG
Olafur Eliasson

## NEUE WELT

취리히 미술관(Kunsthalle Zurich)에서 열린 동명의 전시와 함께 출판된 볼프강 틸먼스Wolfgang Tillmans의 책《Neue Welt》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런던, 베를린, 뉴욕은

MANUALS 2
DESIGN & IDENTITY GUIDELINES

ARTISTS' COCKTAILS
Flynn Gander

MICHAËL BORREMANS
MICHAËL BORREMANS
Ure Prather Beds & Problem Paintings

THE BOOK
CINEMATOGRAPHY ROBBY MÜLLER

물론 상하이, 태즈메이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세계를 포착한 200장이 넘는 디지털 사진을 병치해 싣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미술관의 디렉터 베아트릭스 루프Beatrix Ruf와 나눈 장문의 대담을 함께 담았고, 볼프강 틸만즈가 직접 편집과 디자인을 맡았다.

Taschen
Wolfgang Tillmans

## ARTISTS' COCKTAILS

라이언 갠더Ryan Gander는 2010년 런던 선데이 아트페어(Sunday Art Fair)에서 라이언의 바(Ryan's Bar)를 운영하며 아티스트의 색다른 레서피로 만든 칵테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3년 카셀 도큐멘타(Documenta)를 위한 프로젝트로 〈Artists' Cocktails〉를 기획했다. 런던의 디자인 스튜디오 오바케Abake가 디자인을 맡아 마르티노 감퍼Martino Gamper,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 리암 길릭Liam Gillick, 조너선 몽크Jonathan Monk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칵테일 제조법을 수록하고 있다.

Dent-De-Leone
Ryan Gander

## CINEMATOGRAPHY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짐 자무시의 〈다운 바이 로우〉, 라스 폰 트리에의 〈어둠 속의 댄서〉 등의 촬영 감독으로 잘 알려진 로비 뮐러Robby Müller의 대표작 14편의 스틸 이미지를 마치 자막과 같이 편집한 짤막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메비스&판 되르센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JRP|Ringier
Robby Müller

## AS SWEET AS IT GETS

미카엘 보레만스Michaël Borremans의 완벽에 가까운 기술과 극도로 절제된 색, 전통적인 작법, 해석을 불가하게 만드는 모호한 내러티브가

결합해 만드는 고유의 화풍은 18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과 미술사적 맥락을 함께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모두 1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전시한 동명의 개인전과 함께 출판된 이 책에는 전시작은 물론 작가의 대표작과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드로잉 작업, 비디오 작업을 위한 스토리보드 등 다양한 도판을 싣고 있다.

**Hatje Cantz**
**Michaël Borremans**

# 한양툰크 추천도서

## 슬램덩크

25년 만에 재출간된 슬램덩크 오리지널판은 삭제된 장면들까지 추가하여 그때의 감성을 그대로 되살렸다. 소연의 권유로 농구부에 입단한 강백호가 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

**대원씨아이/이노우에 다케히코**
**5,000원**

## 심야식당

밤 12시에 문을 여는 작은 식당. 미스테리한 마스터가 요리를 한다. 그가 만드는 요리에는 요리를 주문한 사람의 사연이 담겨 있고, 그는 그 사연 위에 따뜻한 위로를 얹어 내놓는다.

**미우/아베 야로**
**8,500원**

## 리틀 포레스트

땀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생생한 농촌 생활 만화.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일본 동북 지방의 산골 마을에 직접 살아본 듯한 대리체험을 맛보게 하는 것이 매력이다.

**세미콜론/이가라시 다이스케**
**9,000원**

SLAM DUNK
디지털 편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TAKEHIKO INOUE
#1
강백호
10
SLAM DUNK
오·리·지·널
디지털 편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TAKEHIKO INOUE

사냥개
탐정
vol. 2

날라리
배낭자
深夜食堂
ABE Yaro
"한 그릇 더"
15

설국열차
TRANSPERCENEIGE
설국열차

## 사냥개 탐정

《고독한 미식가》, 《산책》의 작가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으로, 주인공 류몬 타쿠는 실종된 사냥개만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탐정이다. 융통성 없는 외골수 같지만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애니북스**
**이나미 미츠라, 다니구치 지로**
**9,500원**

## 설국열차

2004년 국내에 번역 출간된 이 만화는 세상이 멸망한 후 유일한 생존처인 열차를 소재로 한 디스토피아적 SF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의 원작이다. 영화는 각색되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유지되어서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세미콜론**
**뱅자맹 르그랑, 자크로브 글**
**장 마르크 로세트 그림**
**24,000원**

## 원펀맨

사이타마는 모든 적을 원펀치로 쓰러뜨리는 최강의 힘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대머리가 되었다. 올해 애니메이션화 되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대원씨아이**
**ONE 글**
**무라타 유스케 그림**
**5,000원**

## 밤을 걷는 선비

"인간의 형상을 한 호랑이를 조심하시게. 그자에게 인간의 피는 향기로운 술과 같아 잔을 꺾어 취하게 만들지."
오싹하고 아름다운 조선시대 뱀파이어 이야기.

**서울문화사/조주희**
**6,000원**

## HO!

청각장애인 Ho와 찌질남 원이가 펼치는 전혀 연애이야기 같지 않은 연애이야기. 올해 '오늘의 우리만화'에 선정되었다.

**거북이북스/억수씨**
**13,000원**

# 책방만일 추천도서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개념으로 공짜나 무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한티재**
**하승수**
**8,000원**

## 위로하는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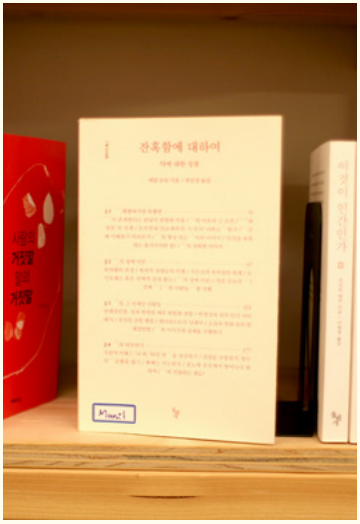
세계적인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몽테뉴 평전.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긴장된 상황에서 쓰여진 책으로, 전쟁이라는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합리적 이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남고자 했던 츠바이크의 열망이 빚어낸 그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하다. 슈테판은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도 프랑스 내전이나 세계 2차 대전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인간성을 온전히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을 고민했는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몽테뉴를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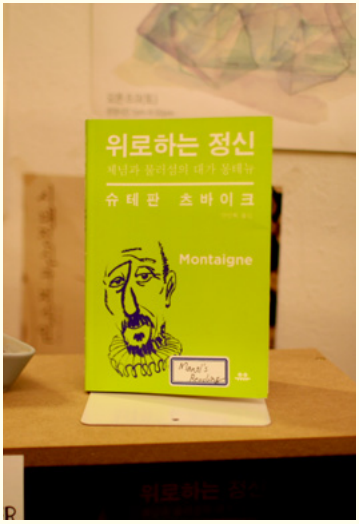
**유유**
**슈테판 츠바이크**
**안인희 옮김**
**10,000원**

## 잔혹함에 대하여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한 한나 아렌트의《예루살렘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관록함에 대하여


위로하는 정신
슈 테 판 초 바 이 크
Montaigne

사랑은 사치일까?
사랑은 사치일까?
MANSPLAIN
여자들의 사상
여자들의 사상

아이히만》,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프리모 레비의 저작,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인종 차별과 인권 탄압에 대한 데즈먼드 투투의 저술이 철학자로 하여금 악이 무엇인지, 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켰다. 이 책은 20세기 심리학의 성과와 인간의 악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성찰을 경유하는 한 철학자의 사유의 결과물이다.

**돌베개**
**애덤 모턴**
**변진경 옮김**
**12,000원**

## 불안의 책

20세기 유럽 문학을 대표하는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의《불안의 책》 포르투갈어 원전 완역본. 그동안 국내에서 페소아의 대표작인《불안의 책》은 지금까지 두 번 출간되었으나, 포르투갈어 원전 완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소아는 수많은 이명(異名)을 통해 하나의 나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공간에서 실재하는 복수의 존재를 구현한 모더니스트다.《불안의 책》 또한 이명 인물의 작품으로 작가와 가장 흡사한 반(半)이명 베르나르두 소아르스의 고백적 단상들로 이루어졌다. 작품을 구성하는 481개의 텍스트 속에는 페소아가 일평생 추구했던 내면의 성찰과 감각적 사유가 깊이 배어 있다.

**문학동네**
**페르난두 페소아**
**오진영 옮김**
**18,000원**

[하이브리드 총서]

## 파국의 지형학

최근 인문학의 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파국, 묵시록, 종말 담론을 콜라주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그 지형도를 드러내고 있는 책. 사상 초유의 전지구적 기상이변 현상과

세계적 경제침몰, 그리고 개인적 삶의 파편화 등이 일반화되면서 아포칼립스 담론이 감염되듯 퍼지고 있는데, 저자는 아포칼립스 나우의 현상들을 '파국'이라는 용어로 포섭해 그 '지형학'을 펼쳐 보이며, 인류가 자신의 문화유산 속에 '파국'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음과모음(이룸)**
**문강형준**
**13,500원**

##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생태, 환경, 역사,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섬세하고 날카로운 통찰과 재치 넘치는 글쓰기를 선보여온 리베카 솔닛의 산문집. 전 세계에서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신조어 '맨스플레인'(mansplain, man+explain)의 발단이 된 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비롯해 여성의 존재를 침묵시키려는 힘을 고찰한 9편의 산문을 묶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성 대 남성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세계의 화해와 대화의 희망까지 이야기하는 대담하고도 날카로운 에세이다.

**창비**
**리베카 솔닛**
**김명남 옮김**
**14,000원**

## 현실탐구단 보고서 04

살아가며 부딪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탐구하는 글쓰기 소모임 '현실탐구단'의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 4호.

**현실탐구단**
**7,000원**

## 출판, 노동, 목소리

각 분야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둘러싼 진솔하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숨쉬는책공장 일과 삶'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시리즈 첫 책으로 출판계의 이야기를 담은《출판, 노동, 목소리》를 펴낸 까닭은

엄연히 출판계에서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지금껏 거의 출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숨쉬는책공장**
**고아영 외 9인**
**15,000원**

# 땡스북스 추천도서

## [제안들]
## 프란츠 카프카-꿈

이미 알려진 고전 대신 마땅히 소개돼야 함에도 국내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았던 책들 혹은 이미 알려진 작가들의 숨은 작품을 선별하여 제안하는 워크룸의 문학 총서 '제안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 글을 쓰는 이들에게 언젠가 필히 내밀한 원형이 되고야 마는 작가, 카프카의 글 중 꿈의 내용을 기록한 대목과 카프카가 자신의 꿈꾸기를 설명한 부분들을 모은 책이다. 탁월한 번역 후기를 싣고자 한다는 취지에 맞게 번역가이기 이전에 이미 작가인 배수아의 단편소설을 함께 실었다. '읽고 싶은 책'이라는 느낌보다 '사고 싶은 책'이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디자인도 이 책의 매력 중 하나.

**워크룸/프란츠 카프카**
**배수아 옮김**
**13,000원**

## 글쓰기 좋은 질문 642

소설가, 영화감독, 작가, 저널리스트, 시인, 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35명이 공동 집필한 글감 642개를 묶은 책. 빈칸으로 채워진 책의 하단에는 질문 하나를 글의 제목으로 삼아 긴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창작자를 꿈꾸거나, 스토리텔링을 원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창조적인 일을 해왔지만 내 안의 샘이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

**큐리어스**
**샌프란시스코 작가집단 그로토**
**박용호 옮김**
**13,500원**

## 3시의 나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 아사오 하루밍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1년 동안 매일 3시의 일상을 기록한 그림일기. 그녀가 기록한 365개의 '오늘'은 하루하루가 한 가닥 실처럼 이어져 1년이라는 시간이 된다. 누구나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 일상의 단면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한 그녀의 일기를 보고 있노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 하고 샘솟는다.

**북노마드**
**아사오 하루밍/이수미 옮김**
**12,500원**

## 사랑은 혈투

유럽에서 가장 주목 받는 프랑스 만화가 바스티앙 비베스가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애틋한 순간들을 그려낸 그래픽노블. 한 커플의 사랑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 기대와 반목, 희망과 좌절, 만남과 이별의 순간을 크레용과 파스텔, 펜화 스케치로 절묘하게 표현했다.

**미메시스**
**바스티앙 비베스**
**그레고리 림펜스, 이혜정 옮김**
**9,800원**

## 오래된 빛

스코틀랜드 작가 앤 스콧이 자신의 생에서 특별하게 느끼는 18곳의 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비블리오필bibliophil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책이다. 각 서점의 문장은 고유 문장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이정호가 각 서점의 개성을 섬세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프란츠
카프카
꿈

CREEPY
AFFECTION
BOYS ON
GIRLS ON FILM
I FELL ASLEEP. POOCHY CREEP, CR

The Paper
EVERY BOOKSHOP
오래된 빛
나의 서점
SMITHS
LEAKEY'S
BOOKS OF WONDER

세상을 여행하는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MaHo

시각화해 새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 북디자이너 안지미가 아트디렉터로 참여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오래된 서점의 기억을 물성으로 되살린 책이다.

**알마**
**앤 스콧**
**강경이 옮김**
**13,800원**

## 세상을 여행하는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실용서.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병원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고민들을 대해 직관과 통찰로 적어 내려간 짧은 메시지를 책으로 엮었다. 《세상을 여행하다 다친 부상자를 위한 안내서》,《세상을 여행하는 방랑자를 위한 안내서》까지 총 세 권이 '세상 안내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는 신호등의 삼색을 모티프로 디자인되었다.

**마호/김현철**
**12,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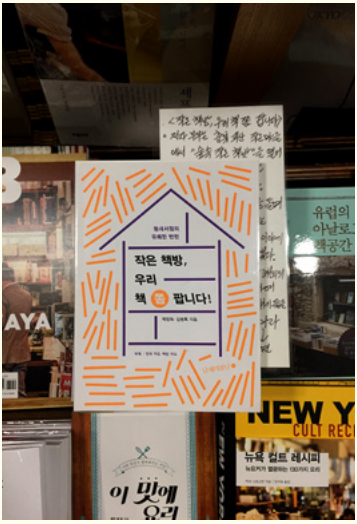
## GIRLS ON FILM
## BOYS ON FILM

포토그래퍼 이고르 테르메논이 창간한 영국의 컨템포러리 사진 Zine. 필름 카메라로 찍은 여성과 남성의 사진들을 담고 있으며 사진에 재능을 가진 신인 포토그래퍼들을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GIRLS ON FILM〉은 그동안 발행한 14권의 이슈에 수록된 사진 중 이고르 테르메논이 베스트 컷을 다시 선정하여 수록한 단행본으로 포토그래퍼 73인의 사진이, 〈BOYS ON FILM〉은 그동안 발행한 8권의 이슈에 수록된 사진 중 포토그래퍼 63인의 사진이 담겨 있다.

**SSE PROJECT/이고르 테르메논**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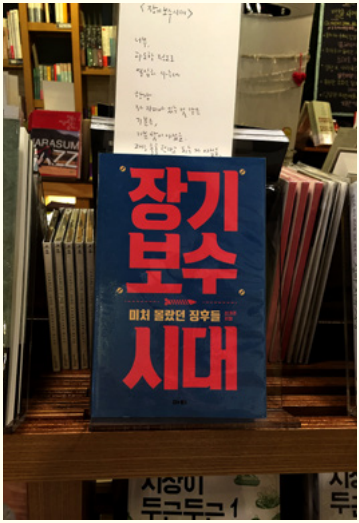
## 창조성을 지켜라

독일의 디자이너 겸 심리학자 프랑크 베르츠바흐가 제안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기계발서. 심리학과 디자인을 가르치는 저자가 창조성과 관련된 자신의


작은 책방,
우리
책 팝니다!
유럽의
아날로
책공간
NEW Y
CULT REC
뉴욕 컬트 레시피
이 밋에
요리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 인생에 대역전은 없지만
'내일'이 있다!
마스타미리

레이스는
길다
그가 당신의 남자다
혼자의 발견


장기
보수
미처 몰랐던 징후들
시대

일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자기 대처 능력에 대해 조언한다.

**안그라픽스**
**프랑크 베르츠바흐/박정례 옮김**
**18,000원**

# 북바이북 추천도서

##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저자 부부는 충북 괴산 작은
마을에서 숲속 작은 책방을
열어 직접 읽고 모은 책들을
소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작은 책방,
골목 서점들을 방문하며 얽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한편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작은 서점들도 탐방하여 동화
같은 잔잔한 얘기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서점을
창업, 개설할 희망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참고서로서 추천하는 바이다.

**남해의봄날**
**백창화, 김병록**
**16,500원**

##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1박 2일'을 그만두고,
마흔을 앞둔 나이에 떠난
아이슬란드로의 여행.
나영석PD의 여행에세이와
'1박 2일'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뒤섞여 나열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나영석PD만의 삶에
대한, 일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일과
삶에 대한 조바심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책 제목 그대로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고
따뜻하게 조언해주고 있는 책.

**문학동네**
**나영석**
**14,000원**

##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나도 이젠 '결혼'이 하고 싶다.
1. 20대의 도전적인 남자들은
이젠 없다. 20대의 멋모르고

수줍던 나도 없다. 그래서 그전보다 더 외롭고, 함께할 사람이 그립다. 그냥 이번 주말에 놀아줄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2. 아주 연예인처럼 예쁘고 몸매 죽이는 친구가 있었다.
"넌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꼬이고."
"내가 언제 가만히 있었다는 거니? 나도 노력해."
"네가???"
"응. 지난 주말에 한 오빠가 주말에 '스노우보드' 장비를 사러간대. 나도 필요한 거 있다고 같이 가자고 했지. 가서 '스노우보드장갑' 하나 샀어."
"난 네가 보드 타는 줄 몰랐네~"
"나 '스노우보드'의 '스노우'도 몰라" 헐!

3. 이 책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임을 인정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책을 집어든 너도 나도 모두 일을 잘해도 사실 연애는 '좁밥'이다. 하지만 우린 또 못하는 건 어떻게든 배우고 익혀서 극복해낼 여자라는 것도 안다. "다음엔 우리 유부녀로 동업하자."

**이봄**
**마스다미리**
**8,000원**

## 장기 보수 시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기분 탓이 아님을. 그냥 훌훌 턴다고 되는 게 아님을.

**마티**
**신기주**
**12,000원**

## 심야치유식당

24시간 전투 모드로 살다, 성취감 중독자로 변모한 나에게 좋은 치유의 책이 될 듯싶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책 속에서 "운동을 그만 둔 이가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득 생각에 잠겼다. '모든 이들은 자신이 꾸려 놓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고생하며 인내와 의지력을 꽃피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다.

**푸른숲**
**하지현**
**13,000원**

## 백의 그림자

나는 황정은의 말투가 너무 좋다. (그녀에게는 문체보다 말투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 아련하지만 담백하고 감상적이지만 군더더기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말한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녀가 쓴 것이라면 반상회에 나오라는 찌라시일지라도 침을 질질 흘리며 읽을 것 같다.

**민음사**
**황정은**
**12,000원**

## 고래

왜 제목이 고래였을까 궁금했는데, 읽다 보니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은 것이 고래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은 우리들이 언젠가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다. 신기하리 만큼, 한번에 읽히는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

**문학동네**
**천명관**
**13,800원**

## 지지않는다는 말

"그렇게 해서 나는 달리기는 몸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운동이란 걸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 지금 예전의 마음 상태는 아니라 아득한 느낌만 남아 있는데,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 있던 시절엔 김연수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글 속에서 꾸준히 '달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서, 읽다 보면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마음의숲**
**김연수**
**12,000원**

서울의 동네서점
전시물들은 타이포잔치
폐막식 이후 국립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한글박물관
한글박물관

한글박물관

구분: 2개 이상 조합 가능

◆ 종합 대중서점

❶ 30년 이상된 서점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❸ 사회 인문학서점

❹ 헌책방

❺ 고서점

❻ 어린이서점

❼ 그림책서점

❽ 예술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❿ 해외출판물서점

⓫ 만화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⓭ 퀴어서점

⓮ 전시가 있는 서점

⓯ 술이 있는 서점

⓰ 여행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⓲ 음악이 있는 서점

⓳ 정부기관 주도의 서점

⓴ 숙박 가능한 서점

㉑ 콜라보서점

# 2016년 3월 21일

# 오늘의 동네서점

## 동네서점 앱에
## 등록된 서점 리스트입니다.

**'동네서점' 앱 소개**

**'동네서점'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쉽게 전국의 가 볼 만한 동네서점을 추천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동네서점을 더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는 '동네서점 지도'와 동네서점의 SNS 사진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동네서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고객지원: www.funnyplan.com**

## 개똥이네 책놀이터

❻ 어린이서점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3나길 16
cafe.naver.com/dongneabook
Tue-Sun 10:00-21:00
(설, 추석 연휴 휴무)
02-338-0478

## 경기서적-역전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수원 매산로1가 47-3
Mon-Sun 10:00-21:00
031-255-7500
gifthorse@naver.com
www.facebook.com/cafeonbookstore

## 경기서적-천천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35번길 38
Mon-Sun 10:00-21:00
031-248-6300
gifthorse@naver.com
www.facebook.com/kyungkibookshop

## 경기서적-호매실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2층
Mon-Sun 10:00-21:00
031-255-7500
gifthorse@naver.com
www.facebook.com/gghomaesilbs

## 고요서사

❸ 사회 인문학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8 1층
blog.naver.com/goyo_bookshop
Mon-Sat 12:00-20:00??
(SNS에 매주 휴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010-7262-4226
goyo_bookshop@naver.com
www.facebook.com/goyobookshop
www.instagram.com/goyo_bookshop

## 공씨책방

❹ 헌책방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51
www.hani.co.kr/arti/culture/book/115599.html
Mon-Sun 10:00-21:30
02-336-3058

## 국자와주걱

⓴ 숙박 가능한 서점
인천시 강화군 강화남로 428번길 46-27
Everyday 10:00-24:00
010-2598-3947

## 그날이오면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89
www.gnal.co.kr
Mon-Sun 09:00-24:00
02-885-8290
www.twitter.com/gnalzigi

## 그냥과보통

❾ 독립출판물서점 ◆ 종합 대중서점
전남 순천시 향교길 39
Everyday 12:00-22:00
010-4582-1894
justbookshop@hanmail.net
www.facebook.com/justbookshop
www.instagram.com/justbotong_books

## 그림책문화공간 노리

❼ 그림책서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8-16번지
blog.naver.com/urirevo
Mon-Fri 10:30-17:30
(토, 일요일 휴무/방문 시 전화 확인하세요.)
010-4283-8440
urirevo@naver.com
cafe.naver.com/picturebooknori

## 기억속의서가

❹ 헌책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9가길 57
흥제현대상가 206호
cafe.naver.com/daeyangbook
Mon-Fri 11:00-20:00
Sat 11:00-18:00 (일요일 휴무)
02-394-4853
ex_libris_@naver.com

## 길담서원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9
cafe.naver.com/gildam
Mon-Sat 12:00-21:00 (일요일 휴무)
02-730-9949
www.twitter.com/gildamsowon

## 노말에이

❾ 독립출판물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서울 중구 장충단로7길 17 2층
www.normala.kr
Tue-Sun 11:00-20:00 (월요일 휴무)
070-4681-5858
normala.kr@gmail.com
www.facebook.com/131watt
www.twitter.com/131watt
www.instagram.com/131watt

## 노원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90 주공 602동 상가 B1
www.nowonbook.com
Everyday Mon-Sun 10:00-22:00
02-951-0633
www.facebook.com/nowonmungo

## 다시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42길 34 지하 1층
kimdoc2.wix.com/kimkyunghyun
Mon-Sat 10:00-17:00
010-9285-4869
kimdoc2@lycos.co.kr
www.facebook.com/dasibookshop
www.twitter.com/dasibookshop
www.instagram.com/dasibookshop

## 단골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87-4번지 1층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24 1층
054-442-5785

## 달팽이책방

❾ 독립출판물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308-12
blog.naver.com/snailbooks
Tue-Sun 12:00-22:00 (월요일 휴무)
070-7532-3316
snailbooks@naver.com
www.facebook.com/bookshopsnail
www.twitter.com/bookshopsnail
www.instagram.com/bookshopsnail

## 대교서점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Mon-Sun 08:00-20:00
02-780-6407

## 대륙서점

⓯ 술이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❶ 30년 이상된 서점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40 1층
Everyday
11:00-22:00"
02-821-8878
daeruk_books@naver.com
www.facebook.com/drbooks
www.twitter.com/daeruk_books
www.instagram.com/daeruk_books/
blog.naver.com/daeruk_books

## 더북소사이어티

❽ 예술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www.thebooksociety.org
Tue-Fri 13:00-20:00
Sat-Sun 13:00-19:00 (월요일 휴무)
02-325-5336
www.facebook.com/The-Book-Society-313330858714739/
www.twitter.com/TheBookSociety
www.instagram.com/thebooksociety_

## 더폴락

❾ 독립출판물서점 ❽ 예술서점
대구 중구 태평로 146-9
blog.naver.com/thepollack
Mon-Tue & Thu-Sun 12:30-20:00
(수요일은 휴무)
010-2977-6533
thepollack@naver.com
www.facebook.com/Thepollack5
www.twitter.com/thepollack5
www.instagram.com/thepollack5

## 데이지북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 종로구 동숭3길 13
www.daisybook.kr
Mon-Fri 12:30-18:30
Sat 11:00-17:30
(일요일, 공휴일 휴무)
070-4366-2811
mail@daisybook.kr
www.instagram.com/ncook703

## 도시여행자

⓰ 여행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대전 중구 대흥동 480-3 1층, 2층
www.citytraveller.co.kr
Mon-Fri 12:00-22:00
Sat-Sun, Holiday 13:00-21:00
010-9430-2715
bookcitytraveller@gmail.com
www.facebook.com/citytraveller

## 도어북스

❾ 독립출판물서점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48 (대흥동 519-20) 1층
www.doorbooks.net
Tue-Sat 13:00-20:00 Sun 10:00-18:00
042-626-6938
doorbooks@naver.com
www.facebook.com/doorbooks
www.twitter.com/door_books
www.instagram.com/door_books

## 도원문고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4
Mon-Sun 10:00-22:30
02-2233-4286

## 동양서림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71-1
blog.naver.com/dilek_choi
Mon-Sun 08:00-21:30
02-762-0715

## 딜다책방

❼ 그림책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제주시 삼성로1길 1, 1층
www.dildabooks.com
Mon-Sat 10:00~18:00
064-723-0441/010-9327-6696
dilda1130@naver.com
www.facebook.com/dildabooks
www.instagram.com/dilda1130/
blog.naver.com/dilda1130

## 땡스북스

⓮ 전시가 있는 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28 더갤러리 1층
www.thanksbooks.com
Everyday 12:00-21:30
02-325-0321
staff@thanksbooks.com
www.facebook.com/thanksbooks
www.twitter.com/thanksbooks
www.instagram.com/thanksbooks

## 라바북스

❾ 독립출판물서점 ⓰ 여행서점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87 1층
www.labas-book.com
Mon-Tue, Thu-Sun 12:00-19:00
(매주 수요일/셋째주 목요일 휴무)
010-4416-0444
labas.book@gmail.com
www.twitter.com/labas_
www.instagram.com/labas.book

## 라비블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1-5 1층,
대동빌딩 102호
www.labible.co.kr
Mon-Fri 10:00-18:00 (토-일요일 휴무)
02-534-7435
info@kcbs.co.kr
www.facebook.com/labible1991

## 라이킷

❼ 독립출판물서점 ⓮ 전시가 있는 서점
제주도 제주 칠성로길 42-2 1층
Mon-Tue, Thu-Sun 12:00-20:00
(수요일 휴무)
010-3325-8796
likeit.jeju@gmail.com
www.facebook.com/likeit.jeju
twitter.com/likeit_jeju

## 레드북스

❸ 사회 인문학서점 ❹ 헌책방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0-1
www.redbooks.co.kr
Mon-Fri 11:00-22:00
Sat 12:00-20:00 (일요일 휴무)
070-4156-4600
redbooks21@gmail.com
www.facebook.com/redbooks21
www.twitter.com/redbooks21

## 매거진랜드

⓾ 해외출판물서점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17
www.eyebook.co.kr
Mon-Sat 10:30-20:00 (일요일휴무)
02-3142-6460

## 문화서적

◆ 종합 대중서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6-16
www.mhbook.net/
Mos-Sun 10:00-22:00
063-276-5800
wingbook@daum.net
www.facebook.com/happyhanbook
twitter.com/happyhanbook1

## 물고기이발관

❼ 독립출판물서점
강원도 강릉시 교동 정원로 84-6
blog.naver.com/donggil1984
Mon, Wed-Fri
Sun 12:00-19:00 (화, 토요일 휴무)
010-4243-2520
mulgogiibal@gmail.com
www.facebook.com/mulgogiibal

## 반반북스

❼ 독립출판물서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2층 203호
www.banbanbook.blog.me
Mon-Sat 13:00-19:00 (일요일 휴무)
banbanbook@naver.com
www.instagram.com/banbanbooks

## 버티고 책방

⓯ 술이 있는 서점
경기도 일산 백석동 1246-4
Everyday 10:00-22:00
031-902-7837
vertigo70@naver.com
www.facebook.com/vertigo7837
www.twitter.com/vertigo702002

## 베로니카이펙트

❼ 그림책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❿ 해외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0
www.veronicaeffect.com
Mon-Sun 11:30-20:00
02-6273-2748
veronicaeffect00@gmail.com
www.instagram.com/veronicaeffect
blog.naver.com/v_effect

## 별책부록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⓲ 음악이 있는 서점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184
Everyday 14:00-19:00
02-333-0580
byeolcheck@gmail.com
www.facebook.com/byeolcheck
www.twitter.com/byeolcheck
www.instagram.com/byeolcheck

## 봄날의책방

⓴ 숙박 가능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1길 6-1
www.namhaebomnal.com/arthouse/shop
Tue-Sat 10:00-19:00
Sun 10:00-15:00
010-2926-9534
wave@namhaebomnal.com
www.facebook.com/namhaebomnal
www.twitter.com/namhaebomnal
www.instagram.com/bomnalbooks

## 북바이북

⓯ 술이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0-10 리안1층
www.bookbybook.co.kr
Mon-Fri 11:00-23:00
Sat-Sun12:00-18:00
02-308-0831
bookbybook@bookbybook.co.kr
www.facebook.com/DMCBYB
www.twitter.com/dmcbyb
www.instagram.com/book_by_book

## 북새통문고

⓫ 만화서점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6길 57
www.booksaetong.co.kr
Mon-Sun 09:00-22:30
02-324-0211

## 북스테이지

❽ 예술서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www.hanpac.or.kr
Tue-Sun 14:00-23:00 (월요일 휴무)
02-3668-0034

## 북스토어 작은정원

❻ 어린이서점 ❼ 그림책서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32
www.booksgarden.kr
Mon-Sat 09:30-19:00 (일요일 휴무)
031-383-1764
booksgarden@naver.com
www.instagram.com/booksgarden.kr

## 북앤일러스트

❼ 그림책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5-2
Mon-Sun 11:00~21:00
070-7555-7523
books.illusts@gmail.com
www.facebook.com/Books.lllusts
www.twitter.com/booksillusts
www.instagram.com/books.illusts/

## 북티크

⓯ 술이 있는 서점 ㉑ 콜라보서점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05
(논현역 8번 출구 1분 거리)
www.booktique.kr
Mon-Fri 08:00-22:00
Sat-Sun 10:00-20:00
02-6204-4774
master@booktique.kr
www.facebook.com/booktique77
www.instagram.com/booktique

## 불광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42 한화생명빌딩 지하1층
Mon-Sat 10:00-22:00
Sun 10:00-21:00?
02-383-4238
www.facebook.com/bkbook1996/

## 상상하는삐삐

❻ 어린이서점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117
blog.daum.net/kalman99
Mon-Sat 10:30-19:00 (일요일 휴무)
02-491-0516

## 샵메이커즈

❾ 독립출판물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부산시 금정구 장전 1동 233-31 1층
www.shopmakers.kr
Tue-Sat 14:00-21:00 (일
월요일 휴무)
051 512 9906
shopmakers@naver.com
www.facebook.com/shopmakers
www.twitter.com/shopmakers
www.instagram.com/shop_makers/

## 서울책방

⓳ 정부기관 주도의 서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시민청내 b1
store.seoul.go.kr
Mon-Fri : 08:30~20:30
Sat-Sun: 09:00~21:00
739-7033
seoulbook0162@daum.net
www.facebook.com/seoulbookstore

## 소소책방

❹ 헌책방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54 2F
www.sosobook.co.kr
Mon-Fri 12:00-20:00(일요일 휴무)
070-8994-4334
badagipi@gmail.com
www.facebook.com/sosobookstore

## 소소한책방

❹ 헌책방 ❸ 사회 인문학서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83 '산새' 2층
Mon-Sat 12:00-18:00?(일요일휴무)
010-8778-7534
sosobookstore@naver.com

## 소심한책방

❾ 독립출판물서점
제주시 구좌읍 종달동길 29-6
www.sosimbook.com
Mon-Thu 10:00-18:00 Fri-Sun13:00-19:00
010-6374-1826
sosimbook@naver.com
www.twitter.com/sosimbook

## 속초 동아서점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강원도 속초 수복로 108 (교동 658)
blog.naver.com/duhgun
Mon-Sun 09:00-22:00
033-632-1555
duhgun@naver.com
www.facebook.com/bookstoredonga

## 숨어있는책

❹ 헌책방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2길 30
Mon-Sun 14:00-23:00
(둘째, 넷째주 월요일 휴무)
02-333-1041

## 숲속작은책방

⓴ 숙박 가능한 서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768-5
(명태재로 미루길90)
cafe.daum.net/supsokiz
Wed-Sun 13:00-18:00(월-화요일 휴무)
010-3362-7626
supsokiz@naver.com
www.facebook.com/636252533109372

## 쉬바펍&북스

⓯ 술이 있는 서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42-24 B1
Mon 19:00-02:00 Tues-Sat 13:00-02:00
Sun 13:00-19:00
02-365-6809
omshivapub@gmail.com
www.facebook.com/shivapub
twitter.com/shiva_pub

## 스토리지 북 앤 필름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115-1 1층
www.storagebookandfilm.com
Tue-Sun 13:00-19:00 (월요일 휴무)
010-2935-9975
togofoto@naver.com
www.facebook.com/storagebookandfilm
www.twitter.com/camera_storage
www.instagram.com/storagebookandfilm

## 슬기로운낙타

❾ 독립출판물서점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59-5 2층
www.cosmicfield.net/
Mon-Fri17:00-21:00 Sat-Sun 13:00-17:00
(임시 휴무시 SNS공지)
cosmicfield@naver.com
www.facebook.com/bangcamel
www.instagram.com/bangcamel

## 슬기서점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219

## 신원문고-노량진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3 노량진 역사1층
www.shinwonbook.co.kr
Everyday 09:30-22:20
02-814-2132
shinwonbook@hanmail.net
www.facebook.com/shinwonhouse
www.twitter.com/shinwonhouse

## 신원문고-대전점

◆ 종합 대중서점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www.shinwonbook.co.kr
Everyday 09:30-22:20
042-254-2130
shinwonbook@hanmail.net
www.facebook.com/shinwonhouse
www.twitter.com/shinwonhouse

## 신원문고-도농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56-7 도농역사3층
www.shinwonbook.co.kr
Everyday 09:30-22:00
031-568-2141
shinwonbook@hanmail.net
www.facebook.com/shinwonhouse
www.twitter.com/shinwonhouse

## 신원문고-부산점

◆ 종합 대중서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역사 2층
www.shinwonbook.co.kr
Everyday 09:30-22:20
051-441-2130
shinwonbook@hanmail.net
www.facebook.com/shinwonhouse
www.twitter.com/shinwonhouse

## 심다

❼ 독립출판물서점⓬ 소규모 복합서점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32
www.simda.co.kr/
010-8383-0726? /?010-3690-4792
simdabooks@gmail.com
www.facebook.com/thesimda/
www.instagram.com/simdabooks/

## 심지

❽ 예술서점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⓾ 해외출판물서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3 창성빌딩
www.simjibook.com
Mon-Fri 09:30-19:00
Sat 10:00-18:00 (일요일 휴무)
02-512-1788

## 씽크빅문고

◆ 종합 대중서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4-23
032-506-4100

## 아이디앤북

⓾ 해외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3
Mon-Sun 10:00-22:00
02-334-8556

## 알모책방

❻ 어린이서점
경기도 일산동구 산두로 4-22 (마두동 916-4)
cafe.daum.net/almobook
Mon-Sat 10:00-18:30 (일요일 휴무)
031-932-4808
ariguna@hanmail.net
www.facebook.com/almobook

## 얄라북스

❼ 독립출판물서점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3길 11 B1
www.yallabooks.co.kr/
Mon-Fri 11:00-20:00 Sat 12:00-18:00
Sun 12:00-17:00
02-745-3330
books@studioyalla.com
facebook.com/yallabooks
www.instagram.com/yallabooks/

## 여행자

⓯ 술이 있는 서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76
blog.naver.com/yeohangza
Everyday 12:00-22:00
02-715-7379
yeohangza@naver.com
facebook.com/yeohangza

## 연신내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61
www.ysnbook.com
Mon-Sun 10:00-22:00
02-352-7600
www.facebook.com/nowonmungo

## 예일문고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84-3
Mon-Sun 12:00-22:00
02-995-5206

## 오! 나의 책방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층 160호
www.ohmybookshop.com
Mon-Fri : 10:30-20:30
Wed, Sat 10:30-18:00
02-305-9762
ohmybookshop@gmail.com
www.instagram.com/ohmybookshop

## 오디너리북샵

⓬ 소규모 복합서점 ❼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6가길 1 1층
www.o_bookshop.blog.me
Mon-Sat 11:00-20:00 (일요일 휴무)
070.8288.8715
o_bookshop@naver.com
www.facebook.com/bookshopordinary
www.instagram.com/ordinarybookshop
blog.naver.com/o_bookshop

## 오브젝트

❼ 독립출판물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마포구 합정동 197-9
www.insideobject.com
Everyday 11:00-23:00
02-333-1369
object.md@gmail.com
www.facebook.com/insideobject
www.instagram.com/insideobject

## 오월의방

❼ 독립출판물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1-27
Sat-Sun 13:00-19:00
maysbookshop@daum.net
www.facebook.com/maysbookshop

## 온고당

⑩ 해외출판물서점 ❶ 30년 이상된 서점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105
www.ongodang.net/
Mon-Sun 10:00-21:00
02-332-9313

## 우주소년

⑰ 커피 차가 있는 서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77-9
www.spaceboy.co.kr
Tue-Fri 12:00-20:00
Sat-Sun 12:00-18:00(월요일, 공휴일 휴무)
031-276-3408
ujoosonyeon@naver.com
www.facebook.com/ujoosonyeon
www.twitter.com/ujoosonyeon

## 유어마인드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6-29 뷰빌딩 5층
www.your-mind.com
Tue-Sun 14:00~21:30(월요일 휴무)
070-8821-8990
ym@your-mind.com
www.facebook.com/bookshopyourmind
www.twitter.com/your_mind_com
www.instagram.com/your_mind_com

## 율목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그레이스 호텔 1층
02-502-8484

## 은마서적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12동) 12
Mon-Sun 10:00-22:30
02-562-7660

## 이상한나라의헌책방

❹ 헌책방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
www.2sangbook.com
Mon, Wed-Sat 15:00-23:00
(화, 일요일 휴무)
070-7698-8903
master@2sangbook.com
facebook.com/2sbook
www.twitter.com/2sangbook
www.instagram.com/2sangbook

## 인디고서원

❸ 사회 인문학서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0-7 (408번길 28)
www.indigoground.net/
Tue-Sun 10:00-오후 20:00(월요일 휴무)
051-628-2897
indigo-book@hanmail.net

## 인서점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24길 14
Mon-Sat 09:00-22:30 (일요일휴무)
02-2201-2250

## 일단멈춤

⑯ 여행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숭문16가길 9 (이대역 5번)
blog.naver.com/stopfornow
Mon-Sat 13:00-20:00(일요일 휴무)
010-2686-2906
stopfornow@daum.net
www.facebook.com/stopfornowbooks
www.instagram.com/stopfornow
blog.naver.com/stopfornow

## 정글북

❾ 독립출판물서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주엽동한솔코아 지하1층)
www.junglebook.co.kr/
Everyday 10:00-21:00
031-922-5000
jtp@junglebook.co.kr

## 제주문화카페 왓집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❽ 예술서점
제주도 제주시 일도 1동 1298-22
cafe.naver.com/spacewhat
Mon-Tue, Thu-Sun 11:00-21:00
(수요일 휴무)
064-755-0055
millaca@naver.com
www.facebook.com/culturalwhat
www.twitter.com/culture_what

## 지은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길 7
02-584-6778

## 진주문고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3-3
Everyday 10:00-22:30
055-743-4123
chinjubook@hanmail.net
www.facebook.com/jinjubook

## 짐프리

⓰ 여행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56 LG팰리스빌딩 지하2층
222호 (홍대입구역 9번출구 지하연결상가 내)
www.zimfree.com
Mon-Sun 09:00-23:00
02-322-1816
zimfreekr@gmail.com
www.facebook.com/zimfree4u
www.twitter.com/zimfree4u
www.instagram.com/zimfree4u

## 책과아이들

❻ 어린이서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89-75
cafe.daum.net/bookandkid
Tue-Fri 10:00-19:30/Sat 9:30-7:00
051-506-1448
booknkid@hanmail.net
www.facebook.com/1518363818420803

## 책바

⓯ 술이 있는 서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24 101호
www.chaegbar.com
Mon-Thu: 19:00-25:30
Fri-Sat: 19:00-27:00(일요일 휴무)
02-6449-5858
www.instagram.com/chaegbar

## 책방무사

❾ 독립출판물서점 ⓲ 음악이 있는 서점
서울시 종로구 계동 2-127
chaegbangmusa@gmail.com
www.twitter.com/musabooks
www.instagram.com/musabooks

## 책방피노키오

❼ 그림책서점 ⑩ 해외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4-11
www.pinokiobookshop.com
Mon-Thu 16:00-21:00
Fri-Sun 14:00-21:00
070-4025-9186
pinokiobookshop@gmail.com
www.facebook.com/Pinokiobookshop
www.twitter.com/pinokiobookshop
www.instagram.com/pinokiobookshop
blog.naver.com/pinokiobooks

## 책방허송세월

❾ 독립출판물서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28-4
Tue-Fri 12:00-19:00
Sat-Sun 11:00-20:00
(월요일 휴무, 일정 페이스북 문의 후 방문)
www.facebook.com/hsswbooks

## 책방만일

⑫ 소규모 복합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16길 46
Mon-Sat 13:00-20:00 (일요일 휴무)
070.4143.7928
manilbooks@gmail.com
www.facebook.com/manilbooks
www.twitter.com/manilbooks
www.instagram.com/manilbooks

## 책방오후다섯시

⑫ 소규모 복합서점 ⑭ 전시가 있는 서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26길 14 3층
www.5pmbooks.com
Sat-Sun 14:00-19:00(토, 일 운영)
010-2343-5216
5pmbooks@naver.com?
www.facebook.com/5pmbooks
www.twitter.com/5pmbooks
www.instagram.com/5pmbooks

## 책방요소

⑫ 소규모 복합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중구 청파로 437-1 성일빌딩 302호
byyoso.blog.me
Tue-Sun 14:00-20:00(월요일 휴무)
070-4144-7866
yoso.book@gmail.com
www.facebook.com/yosobyyosoes
www.instagram.com/yoso_x_yoso

## 책방이곳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9길 2 지하1층
www.igot.co.kr
Tue-Sat 14:00-21:00
Sun 12:00-18:00 (월요일 휴무)
070-4610-3113
www.facebook.com/thisplacebook/
www.twitter.com/thisplacebook
www.instagram.com/this.place

## 책방이음

⓮ 전시가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혜화동 197-1)
cafe.naver.com/eumartbook/
Tue-Sat 13:00-22:00 Sun 13:00-19:00
02-766-9992
jjseok1004@naver.com
www.facebook.com/eumbooks
www.twitter.com/bookeum

## 책의집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4길 64, 1층
blog.naver.com/book_zip
Mon-Sat 12:00-9:30 (일요일 휴무)
051-728-7436
book_zip@naver.com
www.instagram.com/book_zip

## 책터글사랑

◆ 종합 대중서점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78 삼원빌딩 지하1층

## 처용서림

◆ 종합 대중서점
울산 남구 삼산로 14
Mon-Sat 09:00-22:30 Sun 10:00-22:00
052-261-7842

## 청색종이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6
www.bluepaperps.com
Tue-Sat 13:00-21:00(일요일, 월요일 휴무)
02-2636-5811/010-4327-3810
editor@bluepaperps.com
www.facebook.com/bluepaperps
twitter.com/bluepaperps
www.instagram.com/bluepaperps/
blog.naver.com/theotherk

## 청소년책방온지곤지

❸ 사회 인문학서점 ❽ 예술서점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20길 42 2층
www.ozgz.net
Tue-Sun: 10:00-18:00 (월요일 휴무)
010-9938-7763
zziraci@gmail.com
www.facebook.com/ozgz.net
www.twitter.com/ozgzadm

## 청주 우리문고

◆ 종합 대중서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9번길 15
Everyday10:00-22:00
043-255-9662~4
wooribks@naver.com
www.facebook.com/wooribook
www.instagram.com/wooribooks
blog.naver.com/wooribks

## 초방

❼ 그림책서점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91-7
www.chobang.com
Wed, Sat 13:00-17:00
(월-화, 목-금 일요일 휴무)
02-392-0277
chobang@chobang.com
www.facebook.com/chobang22

## 충장서림

❶ 30년 이상된 서점 ❸ 사회 인문학서점
◆ 종합 대중서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35번지
Everyday 10:00-22:00
062-227-1932
cj-book@hanmail.net

## 커피는책이랑

❾ 독립출판물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262-2
www.coffeechaek.com
Mon-Fri 11:00-23:00
Sat-Sun 12:00-22:00 (화요일 휴무)
053-744-2358
coffeechaek@naver.com
www.instagram.com/coffeechaek

## 테이크아웃드로잉 치읓

⓮ 전시가 있는 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용산동 2가 5-760
www.takeoutdrawing.com
Mon, Tue, Thu-Sun 12:00-22:00
(수요일휴무)
02-793-5760
takeoutdrawing@hanmail.net
www.facebook.com/takeoutdrawing
www.twitter.com/takeoutdrawing
www.instagram.com/chiutchiutchiut

## 통문관

❺ 고서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5-1
www.tongmunkwan.co.kr
Mon-Sat 10:30-17:30 (일요일 휴무)
02-734-4092

## 퇴근길책한잔

⓯ 술이 있는 서점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206 1층
blog.naver.com/booknpub
Mon, Wed-Sun 15:00-21:00 (화요일 휴무)
010-9454-7964
booknpub@gmail.com
www.facebook.com/booknpub
www.twitter.com/booknpub
www.instagram.com/booknpub
blog.naver.com/booknpub

## 포스트포에틱스

⓾ 해외출판물서점서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40
www.postpoetics.kr
Mon-Sat 13:00-20:00 (일요일 휴무)
02-322-7023
www.facebook.com/postpoetics
www.instagram.com/postpoetics

## 풀무질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19
cafe.daum.net/poolmoojil
Mon-Fri 09:00-23:00
Sat-Sun 12:00-21:00
02-745-8891/010-4311-6175
7458891@hanmail.net
www.facebook.com/pulmuzil

## 프레드릭

❼ 그림책서점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57-37 은평뉴타운 우물골
236동 상가 112호(은평메디텍고등학교 옆 상가)
blog.naver.com/codathepolar
Mon-Fri 09:30-18:00
(Lunch 12:00-13:00)
070-7715-1027
fredericbooks@gmail.com
www.facebook.com/fredericbooks
www.twitter.com/fredericbooks

## 프렌테

⓲ 음악이 있는 서점 ⓬ 소규모 복합서점
서울 마포구 독막로 6길 30
www.frente.kr
Tue-Sat 17:00-20:00(일-월요일 휴무)
02-3142-2981
frenteshop@naver.com
www.facebook.com/frenteshop
www.instagram.com/frente_shop

## 프루스트의서재

❸ 사회 인문학서점 ❹ 헌책방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 성동구 무수막길 56
www.proustbook.com
Tue-Sun 10:00-21:00(월요일 휴무)
010-8988-2682
proustbook@icloud.com
www.facebook.com/proustbook/
www.twitter.com/proustbook
www.instagram.com/library_of_proust

## 하남문고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3-4
Everyday 10:00-20:00
031-795-6602

## 하늘문고

◆ 종합 대중서점
충청북도 충주 금릉동 859
cafe.daum.net/gtsum
Everyday 09:00-22:00
010-9023-2226
booksdb@hanmail.net
www.facebook.com/1514975485454625

## 한강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5 영보빌딩 지하1층
Mon-Sat 10:00~22:00
Sun 10:00~21:00
02-332-9480

## 한길문고

◆ 종합 대중서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107-8
Mon-Sun 9:00-22:00
063-463-3131
3131book@hanmail.net
www.facebook.com/415150568532466

## 한양문고-마두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 올림픽 스포츠센터 B2
www.hanyangbooks.com
Everyday 10:00-22:00
031-905-0700
hanyangbook@naver.com
www.facebook.com/hanyangbook
blog.naver.com/hanyangbook

## 한양문고-주엽점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태영플라자 B1
www.hanyangbooks.com
Everyday 10:00-22:00
031-919-9511 Ext 3
hanyangbook@naver.com
www.facebook.com/hanyangbook
blog.naver.com/hanyangbook

## 한양문고

◆ 종합 대중서점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중앙로 1388
blog.naver.com/hanyangbook
Everyday 10:00-22:00
031-919-9511 Ext 3
hanyangbook@naver.com
www.facebook.com/hanyangbook
www.twitter.com/hybook

## 한양툰크

⓫ 만화서점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6길 67
www.toonk.com
Mon-Sun 09:30-23:00
02-338-5210

## 햇빛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55
Mon-Sun 9:30-22:30
02-2655-2444

## 햇빛서점

⓭ 퀴어서점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우사단로10길 84
Sat-Sun 14:00-20:00 (Weekend Only)
sunnybooks.kr@gmail.com
www.facebook.com/sunnybooks.kr
www.twitter.com/sunnybooks_kr
www.instagram.com/sunnybooks.kr

## 행복한글간

❶ 30년 이상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www.gulgan.co.kr
Mon-Sun 10:00-21:00
02-3661-6055

## 헬로인디북스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46길 33
www.hello-indiebooks.com
Mon, Wed-Sun 15:00-21:00(화요일 휴무)
010-4563-7830
helloindiebooks@gmail.com
www.facebook.com/helloindiebooks
www.twitter.com/helloindiebooks
blog.naver.com/indiebooks

## 홀리데이 아방궁

❾ 독립출판물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서울 성동구 응봉동 193-101 1층
www.moolgogimori.com
Thu, Sun off (목, 일요일 휴무)
010-2740-8687
godal815@naver.com
www.facebook.com/holidayava
www.instagram.com/holiday_library

## 홀린

❾ 독립출판물서점 ❽ 예술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23-21
www.holyn.com
Mon-Fri 10:00-20:00 (토, 일요일 휴무)
043-222-3366
holyn@outlook.com
www.twitter.com/booklab

## 홍익문고

❷ 90년대 시작한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2
cafe.naver.com/hongikbook
Mon-Sun 9:00-21:00
02-392-2020

## 홍익서점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33
063-581-5119

## 1984

⓱ 커피 차가 있는 서점 ◆ 종합 대중서점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www.re1984.com
Everyday 11:00~23:00
02-325-1984
master@re1984.com
www.facebook.com/1984culture

## 200/20

⓬ 소규모 복합서점 ❸ 사회 인문학서점
서울 중구 청계천로160 세운청계상가 가열
311호(산림동 207-1)
www.200x20.org
Mon-Sat 14:00-20:00 (일요일 휴무)
010-7619-2229
20020text@gmail.com
www.facebook.com/20020page
www.twitter.com/20020text
www.instagram.com/200x20

## 5km북스토어

❾ 독립출판물서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1-1
2층, 3층 (지하철1호선 부천역)
www.5kmproject.com
Mon-Sun 13:00-23:00
032-611-9636
010-4907-1870
soaring11@naver.com
www.facebook.com/cafe5km
www.instagram.com/cafe5kmbookstore

## Off to(__)Alone

❾ 독립출판물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31-23
www.facebook.com/offtoalone
Tue-Fri 12:30-18:30
Sat 13:00-19:00 (일-월요일 휴무
매주 조금씩 변경되니 SNS를 통해 확인하세요)
offtoalone@gmail.com
www.facebook.com/offtoalone
www.instagram.com/nakwhee

# 동네서점 지도?
# 재미로 시작했다가 그만!

"이걸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흠… 그거 재밌겠는데!"
땡스북스 이기섭 대표님을 처음 만나 나눈
이 한마디로 모든 일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스토리펀딩 시작 2주 만에 100% 모금 목표액 달성,
그리고 154% 모금액 초과로 마감까지!

6주간의 긴 여정을 함께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한 자 한 자 적어봅니다.

스토리펀딩에 모금해주신 241명의 후원자뿐 아니라,
대가 없이 기꺼이 손잡아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동네서점 지도 운영 원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역 형평성.

처음 기대와는 달리(?) 일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죠.
동네서점 지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

퍼니플랜
남반장

# 스토리펀딩 함께해주신 분들

**후원자 명단**

후원자의 '이름(닉네임)'으로 가나다 순 표기

가벼움, 강라겸(Muze), 강사랑(SARANG KANG), 강소영(글로리아),
강태욱(한울지기), 강태웅, 갸웃, 고영미, 고요서사(ppol), 공간미,
구나연(ny), 구본영(시티헌터), 권순미, 금강, 김관후(Appassionata),
김광현, 김남기(산), 김다현, 김대선(양반), 김대연(3rdstory),
김동준(빗자루), 김동현(간장콩탱크), 김동환(별), 김미경(은근이), 김미연,
김미영, 김민선, 김민영(SasSy), 김민채(민채), 김상미(상미), 김상영,
김성진(트리운드), 김소영, 김실비, 김양희(광장으로나서서), 김영범,
김영봉(signora), 김영식, 김옥주, 김우진(가을남자), 김유정(케이와이),
김윤일, 김윤정, 김은경(김치), 김은화(00회계법인), 김인숙(초록), 김정한,
김준태, 김지은(블루), 김태연, 김태희(천연소재), 김한국(꿈의정령),
김헌주(금강), 김현지(hyunji), 김화평(Ⓟeace), 김희진(사상), 꿈짱, 나예주,
남용희, 남형주(The TyphooN), 내맘대로, 노란청록화, 노미령(칼리아르),
노종숙(enjoy), 단비스토어, 둘리, 라미경, 류봄이(bbom),
류진곤, 링고ㅋㄷ, 묘한이, 문성욱, 문준영, 문해준, 민종필(감전),
박경배(하늘위에는), 박성표(FeeveeR), 박소령, 박수현(푸른겨울바람),
박수형, 박숙경(야옹), 박순제, 박영림(yalli), 박윤희(좋은날), 박은경,
박의선, 박주현(미르), 백은숙(프리), 백진이(jindesign), 블루브레인,
새땅, 생활인, 서수진, 서정욱, 석원식(maeno), 설동연(HOAN), 성낙미,
성미는 멋쟁이, 성상림(도전고고), 성지원, 소율이네그림책방(꼬맹샘),
속초 동아서점, 손꼽힌, 송혜영, 송혜원(사브리나), 수수, 수잉, 순
정(라사), 순천역 책방, 심다(홍승용과 김주은), 숲속, 슈퍼걸호두닭,
신현정(어린왕자), 아이고, 안세영(susanna), 양은하, 양종호(유수부쟁선),
엄윤미, 여강으로, 영어독서클럽, 오은경(행복하게), 옻칠공예가성광명,
우송, 유상열, 윤영근(Blue Sky), 윤용희(용아), 윤진희(테디냥),
은미향(eee), 이강현(AURA), 이미란(미란네), 이병진(아날로그),
이병찬(스커드), 이서희, 이선영(WildWorld), 이예니, 이윤성(아침햇살),
이재환(time), 이주연(주여니), 이주훈(blacktiger), 이준열,
이지혜(당찬여자), 이찬미, 이창만, 이한나, 이현석, 이현애(windywindy),
이현영(kumarinn), 이현재(체대생이라불러줘), 이혜림(라라플로라),

이화성, 임영석(비갤무렵), 임은전(1004), 임진규(jake감성달빛),
임태전(eeblac), 자운영, 작은별, 작은정원, 장석현, 장은정, 장인애,
전효근, 정보라(Bbora), 정연택(마법상점), 정영화(그대로), 정요한(나),
정은주(은짱), 정정미, 정진일, 정현우, 정희연(heeyeon), 조병일(선술집),
조성환, 조승리(Pseudo_), 조아라(알), 조영숙(진실 조), 조완철(도투마리),
조유림, 조준연(준여니), 조현경, 존중과배려, 지렁이, 천소희(소희),
천장지구, 천준아, 최범식(무모한범생), 최용준, 최정원, 최진희, 최희정,
추진석(jinsuk), 페스티나렌테, 표소진(freshmaker), 표지훈(나는나),
하정(blanca), 한상수, 한슬기(술기), 한양문고(주엽 마두), 한연숙,
한종민(Oasis), 함상규(공간미), 혜안, 홍원식(won), 황윤선(윤자),
황윤실, 황은주, @baguette21, 5KM 북스토어(김병철), bluewind, CEO
Mr-park, DaumLee, devCAT, doorbooks(도어북스), kueilove, Lim Ho,
mixsams7, mozolady, mstapark, norejoa2, PHYO, seyfg, the man, Tony황,
wisdomrvd, yellonia,

**스마트폰 앱 공동개발**

소울웨어(이음북) Aiden, Dorothy, Justin, Tom www.eumbook.com,

**스토리 연재 기고**

책방무사 요조, 이종수 www.facebook.com/musabookstore,
진주문고 여태훈, 정도선 www.facebook.com/jinjubook,
북티크 박종원 www.booktique.kr,
소심한책방 장인애, 현미라 www.sosimbook.com,
속초동아서점 김일수, 김영건 www.facebook.com/bookstoredonga ,
도시여행자 김준태, 박은영 www.citytraveller.co.kr,

**스토리펀딩 운영지원**

주식회사 카카오 PRMC파트 스토리펀딩 팀 storyfunding.daum.net,

**리워드 상품 후원**

어프리 남상우 www.appree.net, 두두 박영두 www.doodoo-ds.com,

**미디어 후원**

행복한아침독서 한상수, 홍주열 www.morningreading.org,
북피알 나영광 www.bookpr.co.kr

어서오세요,
오늘의 동네서점

발행: 2016년 4월 4일
기획·제작: 땡스북스+퍼니플랜
교정·관리: 알마출판사
그림·디자인: 이기섭

알마출판사
안지미, 성기승, 정명효, 박혜미, 김수연, 한승연, 심규완, 박유리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8, 4~5층
T 02-324-3800
www.facebook.com/almabooks

퍼니플랜
남창우, 남용희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10층 1027호 (다동 10, 문화창조벤처단지)
T 010-8141-7309
www.funnyplan.com

땡스북스
이기섭, 김욱, 최혜영, 정지혜, 최보명, 김영은, 손정승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28
T 02-325-0321
www.thanksbooks.com

Copyright©2016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서점 소개 원고와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서점에 있습니다.
2015 타이포잔치 제4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진은 김진솔, 싸우나스튜디오에서 촬영했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표지 서체는 글자연구소의 공간체를 사용했습니다.

값 5,000원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보수 없이 참여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종이값과 인쇄비에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 일부가 사용되었고
책판매 수익금은 동네서점 앱 개발에 사용됩니다.

ISBN 979-11-85430-98-0 (03800)

ISBN 979-11-85430-98-0 (03800)

값 5,000원

## 동네서점 앱을 소개합니다.

동네서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서점이 하나둘 쉽게 잊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주변의 가볼 만한 동네서점을 추천하고,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동네서점'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쉽게
전국의 가볼 만한 동네서점을 추천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동네서점을 더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는 '동네서점
지도'와 동네서점의 SNS 사진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동네서점'을 제공합니다.

**2016년 4월 26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www.funnyplan.com**
**고객지원: www.funnyplan.com/contact**